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소식

제호 :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 발행일 : 2006년 3월 | 발행인 : 강순범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55-5번지 102호 (135-010)
TEL : (02) 512-5915 | FAX : (02) 512-5421 | www.ksgoc.or.kr | E-mail : gynecancer@gynecancer.or.kr



▲ 제20차 학술대회 기념사진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6년 丙戌年이 새해가 밝은지도 엇그제 같습니다마는 어느 새 매섭던 추위도 자취를 감추고 새싹이 파릇하게 움트는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의료환경 속에서도 항상 본 학회에 열과 성의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이며 올 한 해에도 회원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제가 본 학회의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한 지도 이제 절반이 훨씬 지나 이제 학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간도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재작년 가을, 회원 여러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한 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를 만들겠다는 힘찬 포부와 함께 이 자리에 선 이후 다방면으로 우리 부인종양학회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습니다.

일년 남짓한 길지 않은 기간 동안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이뤄놓은 성과들을 돌아켜 볼 때 제 스스로 자부심을 갖게 되는 일도 많습니다마는 그간에 미흡했던 부분들과 함께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해결되어야 할 여러 현안들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제 스스로를 채찍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2006년도 첫 소식지의 발간을 맞아 즈음하여 그 간 우리 학회의 활동상을 정리하고 새해에 이뤄야 할 과제들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학회의 설립목적은 그 해당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지식의 향상을 추구하는 것이 다른 어떤 목적에 우선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 학회의 회칙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회장직을 맡은 이후 가장 역점을 둔 부분도 바로 우리 학회의 학문적 성취도를 한 단계 더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공감하시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그 동안 본 학회의 학술 경연의 장이라 할 수 있는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을 더욱 내실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작년 4월의 제 11차 심포지엄과 11월의 20차 학술대회에서는 이전보다 한층 진전된 내용으로 참여한 회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부인종양학 발전의 초석이 되는 기초 연구분야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KGOG의 출범으로 부인종양학 분야에서도 활기를 띄고 있는 암 관련 임상시험의 국내의 동향을 소개하는 한편 저명한 외국 연자 초빙에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수준 높은 학술 교류의 장을 만든 결과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역점을 둔 것은 우리 학회지의 질적 개선입니다. 우리 학회의 규모가 확대되고 내실을 기해가고 있는 지금, 학회의 학문적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역시 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의 질적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간 학회 산하 편집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력으로 논문 심사 요건을 강화하고 회원 여러분의 원활한 논문게재를 위하여 그동안 추진해 오던 학회지 논문접수 및 심사 시스템을 online화 하는 등의 외형적 변화의 시도는 궁극적으로 회원 여러분의 학술활동의 질적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인프라의 구축이었습니다.

이러한 외형적 개선과 함께 최근 우리 학술지는 중요한 발전적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공식 학술지인 '부인종양'이 2005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 후보 학술지"로 새로이 선정된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발간 15년이 된 우리 학회지의 역사에 비추어 보면 다행은 감이 없잖아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 간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학회지의 학진 등재, 나아가서 medline, SCI 등재 학술지로의 첫 발걸음을 떼었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학진 등재지로 선정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은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 지는데, 예를 들면, 논문 저자의 학술연구비 지원 및 연구결과와 평가 연계, 학술연구업적 평가자료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등재 후보 학술지로 선정된 이후 한국학술진흥재단(학진)은 향후 2년간 발행되는 학술지를 대상으로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등재학술지'로의 선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가 "출간의 정시성"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좋은 논문이 제 때 많이 투고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고를 당부드리는 바이며 창간호부터 현재까지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편집위원님들, 심사위원님 그리고 학회회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 소개드려야 할 일은 올 4월에 있을 제21차 학술대회 기간 중에 우리 학술지 '부인종양'에 대한 개선점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학술지 발전세미나를 처음으로 준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몇 분을 초빙하여 함께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간의 우리 학회지에 대한 자체적인 반성과 건설적인 토론은 우리 학회지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활발한 토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학술적 성과를 전함에 있어 그간의 KGOG의 활동을 소개해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전에 본 학회 KGOG가 미국 GOG의 준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KGOG는 미국 GOG와의 활발한 교류를 전개하여 현재 GOG에서 수행중인 protocol중 우리 현실에 맞는 일부의 임상연구를 선정하여 참여하기로 결정하였고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예정입니다. 본 학회의 연구 수준이 이미 국내의 그것이 아닌 국제적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디딤돌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체적으로는 작년 8월 처음으로 KGOG 워크샵을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으며 또한 복지부 연구지원과 연계된 성인고형암치료 임상연구센터(CRCST)과 관련하여 기존에 수행중인 자궁경부암 관련 다기관 공동 임상시험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마침내 피험자 등재가 완료되었으며 새로이 자궁내막암 관련 연

구가 피험자 등재를 시작하였습니다. 올 4월에는 부인종양연구회 워크샵/심포지움을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여 그간의 부인종양연구회의 활동 사항을 정리하고 차후 수행 예정인 10 여개의 임상시험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어 새로운 임상시험의 수행에 근간이 되는 지식들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활발한 토론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KGOG 자체 홈페이지를 열어 현재 수행중인 임상시험목록과 여러 가지 유용한 자료들을 게시하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방문을 기대합니다.

학회 학술위원회 산하에 가이드라인 위원회를 설치하여 5대 여성암의 한 축으로서 자궁경부암 포함 부인암 치료의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여 11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HPV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자궁경부암 백신 시대에 대비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은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로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이에그치지 않고 학회의 역할에 대한 많은 기대와 다양한 요구들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고 점점 학회의 역량이 필요한 사안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복지부에서 추진중인 암보장성 강화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정책도 이의 시행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부인암 분야에서의 상대적으로 미흡한 정책 사안에 대하여 여러 회원님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과 수렴을 통한 단합된 모습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 입니다. 또한나는 지금 산부인과 전체가 극도의 저출산과 저수가 정책으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부인암 수술 수가의 적정성을 회복하는 것은 시급한 당면과제중의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연구와 정책 건의 등으로 비합리적인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학회차원의 대응이 필요할 때 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원 및 각 교실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장이 필요합니다. 각 회원 들의 요구를 취합하고 각 교실의 동향 등 일상적인 정보교류가 이루어 질 때 이것이 곧 학회의 발전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소식지를 발간하게 된 것이 회원님들께 기쁜 소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소식지는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의 의견공유, 학회 사업에 대한 정보, 의료정책에 대한 논의 및 회원 들 간의 근황을 접할 수 있는 유익한 수단이 될 것 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인종양학회가 회원님들의 활동에 든든한 지지대가 되어 드릴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제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모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회원님들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에 안녕을 기원합니다.

2006년 3월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회장 강 순 범

제20차 학술대회 참관 후기



국립암센터 강 석 범

제주공항에 도착하여 학회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마음이 설레임을 금할 수 없었던 이유는 나날이 발전하고 도약하는 부인종양 학회 학술대회의 새로운 모습을 곧 보게 되리라는 까닭에서였습니다. 이미 국내 학술대회 가운데에서는 최정상이라 하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며 발표되는 연구성과 또한 국내 최고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음이 알려진 바, 이번 제 20차 학술대회에서는 다시 얼마나 도약하는 모습을 보게 될는지 상상하는 동안 어느덧 학회장에 도착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금번 학회에서는 Gynecologic oncology의 editor이자, 미국 Mayo clinic의 부인종양의 대가 K. Podratz 박사와 워싱턴 의대의 D. Mutch 박사가 초청연자로 온다하여 더욱더 높아진 대한부인종양학회의 위상에 다시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한 학회는 학술대상 수상 및 강연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른 시간이었는데도 강당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의 그 뜨거운 열기는 금번 학술대회의 성공을 알리는 신호로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세계적 연구성과와 겨루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많은 수상 후보 논문을 제치고 서울대학교 산부인과 교실 송용상 교수님 연구진들에 의한 COX-2 발현에 따른 종양의 방사선 민감성 연구가 학술대상을 차지하였습니다. 최근 학계의 뜨거운 주제인 COX-2와 종양 치료의 주된 도구인 방사선 치료의 감수성을 점목시켜서 COX-2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듯 한 참신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시금 발전하는 부인종양학회 학술대회의

역량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오전 세션의 대주제는 자궁내막암이었습니다. 자궁경부암의 빈도 감소 및 예방 노력 등으로 부인종양 연구자들이 새롭게 관심을 쏟아야 하는 분야임으로 첫 세션으로 배치한 학술대회 조직위원회의 혜안에 다시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첫 시간에는 고려의대 이재관 선생님께서 한국에서의 자궁내막암 발생률과 사망률에 대해 강의를 해주셨는데 서구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 한국에서 향후 더욱 자궁내막암의 중요성에 대하여 관심을 갖아야 한다는 경종을 울려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D.Mutch 박사가 최근 변화하고 있는 자궁내막암의 수술에 대한 최신 지견을 강연하였는데 자궁내막암 치료에 있어서 림프절 절제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었습니다. 또한, 자궁내막암에서도 수술을 통한 종양 감축 및 적극적인 항암화학요법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발표하여 많은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어서 K.Podratz 박사는 자궁내막암에서의 Target-based treatment에 대하여 강조하였는데, 대가답게 오랜 임상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풍부한 식견으로 많은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Podratz 박사는 기존의 자궁내막암 치료방법의 한계성을 강조하면서 치료방법의 패러다임-쉬프트가 일어나야 한다고 역설하였으며 치료실패유형(patterns of failure)에 따른 치료방법의 변화해야 한다고 하여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contents

2006년 3월(통권 제9호)

- 1 인사말
- 3 제20차 학술대회 참관 후기
- 4 ECCO 13 및 2005년 하반기 GCIG모임 참관기
- 7 IGCS Kyoto 모임 참가기
- 9 1st HPV Policy Forum 참관기
- 12 72차 GOG업무모임 참석기
- 15 학회20년사 추가본, 정오표
- 17 학회지 '부인종양' 소식
- 19 부인종양연구회 워크숍 일정표
- 20 21차 학술대회 일정표
- 21 20차 학술대회 수상자 명단
- 23 학회 회무보고
- 34 2006년 주요학회 일정
- 35 회원동정
- 36 편집후기
- 38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조직도



이어서 이어지는 세션은 부인 종양중 가장 높은 사망률을 자랑하는 난소암의 치료에 대한 강의로 이어졌습니다. 이전 강의에 이어서 다시 한번 Podratz 박사는 난소암의 수술적 치료에 있어서 효과적인 종양 감축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수술적 기법을 이용한 적극적 수술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난소암의 수술적 치료의 세계적 흐름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어서 Mutch 박사는 그간의 임상시험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난소암의 항암화학요법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서 성균관대의 김병기 교수님께서 난소암 치료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분자생물학적 치료지표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알기 쉽게 요약하여 주셨습니다. 맞춤치료의학이 현대 의학의 새로운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말 시기 적절한 강의내용이어서 많은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점심식사가 끝나기 무섭게, 곧이어 학술대회는 일반연제 발표 시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일반연제는 참가자가 많아서 강당 두 곳에서 나누어서 진행을 하여야 할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으며, 그 연구성과 또한 감탄을 금할 수 없을 정도로 참신하고 그 수준도 상당하여, 대한부인종양학회의 저력에 다시 한번 놀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반연제 발표에 이어서 오후시간에는 국내에서 가장 호발하는 부인종양인 자궁경부암에 대한 세션이 있었습니다. 첫 순서로 아주의대 유희석 교수님께서 병기 IB2의 자궁경부암 치료방법의 국내현황에 대해 발표하여 주셨습니다. 이 연구는 KGOG 다기관 공동연구의 하나로서 이미 해외의 부인종양 최고 권위 학술지에서도 게재가 결정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KGOG의 다기관 공동연구가 벌써 놀라운 결실을 맺어내기 시작하고 있음에 가슴이 벅차오름을 금할 수 없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카톨릭의대의 류기성 교수님이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자궁경부암의 HPV 백신에 대한 최신 지견을 알기 쉽게 강의해 주셔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후 자궁경부암과 유전자 다형성 연구라는 주제로 본 필자의 줄강이 있었고, 끝으로 성균관대의 이기현 교수님께서 자궁경부암과 고령환자 치료에 대하여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인구의 고령화 및 자궁경부 치료방법의 발전에 힘입어 고령 자궁경부암 환자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에서 고령환자에서도 적극적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큰 공감을 불러 일으킨 강의였습니다.

저녁시간에는 성대한 만찬과 함께 대한부인종양학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신 선생님들의 공로를 기리는 공로패 수여식,

빛나는 대한부인종양학회 20년 발전의 족적을 되새겨볼 수 있었던 20년사 발간 기념회 및 뛰어난 연구업적을 금번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연구자들에 대한 우수논문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감미로운 음식 만큼이나 알차고 풍성한 만찬이었으며, 박찬규, 목정은, 그리고 남궁성은 교수님께서 그간 대한부인종양학회 발전에 헌신하신 업적으로 공로패를 수상하셔서 참가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금번 제 20차 대한부인종양학회 추계학술대회는 하루라는 짧은 시간에 학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망해 볼 수 있었던 기회였으며, 앞서가는 서구 연구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모든 참가자들에게 심어주었던 풍성한 기회였습니다. 더불어, 학회를 준비해 주시며 그간 고생하고 수고해 주신 대한부인종양학회의 여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사를 전합니다. ♣

ECCO 13 및 2005년 하반기 GCIG 모임 참관기



서울대학교병원 이택상

작년 10월 30일부터 11월 4일 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었던 제13차 유럽암학회(European Cancer Conference) 및 Gynecologic Cancer Intergroup (GCIG)에 KGOG (Korean Gynecologic Oncology Group)의 일원으로 김경태 위원장님과 조치흠 교수님을 모시고 참가하게 되어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유럽 암학회는 유럽 내에서 미국의 임상암학회(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ASCO)에 대견될 만한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주관하는 유럽 암학회연합(Federation of European Cancer Society)은 1981년 결성되어 내, 외과학 및 방사선종양학, 간호학, 소아 종양학 등 종양학 각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유럽 내 종양학 분야에서의 정책결정을 주도하고 있으며 아울러 종양환자의 치료에 긴밀한 협력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이번 13차 ECCO 에서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지에서 암에 대한 치료와 연구를 담당하는 약10,000여명의 의사 및 연구자들이 참석하여 다양하고 풍성한 연구업적의 발표가 있었다. 짧은 지면으로 방대한 내용을 다 소개할 수는 없겠으나 참석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그간의 여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10월 30일 오전 학회장인 Le Palais Des Congres 를 찾았는데 이곳은 파리에서도 유명한 '역사적 중심축'으로 불리워지는 루브르 와 라데팡스를 잇는 일직선 도로상에 위치해 있었으며 속소가 있었던 파리 개선문에서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었다. 웅장한 규모의 현대적인 건물을

고풍스런 주변 건축물들과의 조화를 잃지 않으면서 적절히 배치한 프랑스인들의 뛰어난 예술적 감각을 실감케 했다.

본격적인 학회 일정은 이튿날인 10월 31일부터 시작하였다. 부인종양 분야에서는 Prevention and early diagnosis of cervical cancer에 관한 session에서 HPV testing 의 screening tool로서의 역할과 low-resource setting에서의 screening에 관한 최신 지견이 소개되었고 기타 cancer pain management에 관한 전반적인 review가 행해졌다.

11월 1일부터는 전날 밤늦게 도착하신 김경태, 조치흠 교수님과 함께 참석하였는데 피곤한 여정에도 불구하고 전일 학회장을 뜨지 않으시는 열정을 보이었다. 이날 소개된 부인암 분야의 연제들 중에는 현재 KGOG에서도 추진중인 난소암에서의 항암화학요법에 관한 유럽내 다기관

임상연구에 관한 중간보고가 있어 관심을 모았는데, 기존의 Paclitaxel-carboplatin요법과 gemcitabine 을 포함한 삼중요법을 비교한 GCIG의 phase III study의 interim analysis로 덴마크의 Herstedt교수는 TCG regimen이 비교적 feasible 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생존율의 향상여부에 대한 앞으로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고 하였다.

이날 오후 늦게 두 분 교수님 및 소개받은 한국인 가이드와 함께 파리 교외 퐁텐블로성을 찾았는데 이곳은 프랑스 왕실의 별장과 같은 곳으로 그 유명한 베르사이유궁의 화려함이나 규모에는 미치지 못하였지만 그 당시 사치와 향락을 일삼던 혁명전의 황실의 생활상을 느끼기에 충분하였다. 돌아 오는 길에 바르비종이 마을을 둘러 밀레의 작업실을 둘러본 후 그날 일정을 마쳤다.





11월 2일 오전 Teaching lecture 세션에서는 독일의 Pfisterer 교수(현 GCIG 의장)가 진행형 난소암에서 현재 진행중이거나 최근 종료된 3상 임상시험들에 대한 review가 있었다. 크게 Neoadjuvant chemotherapy, maintenance therapy, 1st line chemotherapy 에서 제3제의 병용이라는 3가지 issue들이 다루어 졌는데 특히 paclitaxel 의 새로운 제형인 xyotax(paclitaxel poliglumex)를 이용하여 난소암에서의 maintenance

therapy의 효과를 보는 GOG-212가 새로이 소개되었다.

이튿날 11월3일부터 2일간은 자리를 이동하여 파리 중심부 노트르담 맞은편에 위치한 Hopital Hotel Dieu라는 병원에서 열린 GCIG semi-annual meeting에 참가하였다. GCIG는 1990년대 말 태동되어 한 해에 두 번씩 ASCO, IGCS, ECCO 등이 개최되는 시기에 부가적으로 모임을 갖는다. 이 모임은 현재 KGOG에서도 observer자격으로 참가하고 있는데 2004년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ASCO 때 김재원 교수님이 처음

참석하였고 동년 가을 모임에는 에딘버러에서 열린 IGCS 때 김영탁 교수님, 2005년 상반기에는 김경태 교수님이 참석하였고 이번이 네 번째였다. 회의는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전세계 14개 부인암 임상시험 그룹을 중심으로 모인 30여명의 대표들이 참가하였고 우리나라, 이태리 등이 읊저버로 참가하였다.

회의는 첫날 여러 주제들로 소그룹 회의를 진행하여 다음날 전체회의에서 각

소그룹의 위원장들이 논의된 내용을 발표하여 연구 주제를 도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주제는 2004년에 거론되었던 내용들과 많이 중복되어 있었다. 이 중에서 RTOG의 Gaffney 등이 중심이 된 cervix cancer 소그룹에서 FIGO의 요청을 받아 토론한 내용을 소개하면 기존의 cervical cancer FIGO stage I, II 에서 종양 직경이 7cm보다 큰 경우를 따로 정의하여 substaging 하자는 제안과 CT, MR, PET등의 imaging modality를 staging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consensus가 이뤄지지 않은 채로 나중에 FIGO staging working group에서 안건을 결론짓기로 하였다.

이날 오후 meeting참석을 마지막으로 일정을 마무리한 후 루브르 박물관을 약 3시간에 걸쳐 수박 겉핥기로 바쁘게 돌아보며 6일간의 여정의 아쉬움을 달랜 뒤 곧바로 공항으로 향하였다.

이번 학회는 그 규모나 내용 면에서 필자에게 신선한 자극제가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부인종양학의 우수한 업적들도 점차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으며 KGOG가 그 중심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였다. 끝으로 이번 학회에 동행하시어 해외학회 참석경험이 별로 없는 필자를 끝까지 이끌어 주신 김경태, 조치흠 두 분 교수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The 15th Anniversary of Annual Review Course on Gynecologic Oncology and Pathology as The Satellite Meeting of International Gynecologic Cancer Society (IGCS) in Asia

가톨릭의대 허수영



2005년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일본 교토에서 Satellite Meeting of International Gynecologic Cancer Society (IGCS) in Asia로서 제 15차 Anniversary of Annual Review Course on Gynecologic Oncology and Pathology가 개최되었다. 이번 meeting은 2004년 Edinburgh에서 열렸던 제 10차 IGCS 회의에서 일본 Kyoto university의 chairman인 Shingo Fujii 교수가 Council Meeting에 제안하여 열리게 된 것으로 IGCS의 council member가 참가하여 일본 및 아시아 지역의 IGCS 회원들과 함께 뛰어난 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모임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개최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강순범 대한부인종양. 콜포스코피학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30명의 부인종양 관련 교수님 등이 참석하였고, 개최국인 일본 및 중국, 대만, 홍콩, 태국 등 많은 다른 아시아지역의 회원들이 100여명 이상 참석하여, 임상진료에 도움이 되는 주제와 이와 관련된 기초 연구의 성과 및 동향 등에 대한 대가들의 강연을 듣고 토론을 함께 하며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 규모가 방대한 학회는 아니었지만 주제에 대한 연자들의 준비가 돋보였고 내실 있는 토론으로 학회 기간 동안 다른 모임에서 보다 더 뜨거운 학구열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지면으로 모든 학회 내용을 소개 드리는 것이 어려우나 이들 동안의 강좌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고자 한다.

11월 18일 오전에 시작된 첫날 강의는 3가지 주제로 나누어졌는데, 첫째는 진단 치료 및 삶의 질적 향상, 둘째는 중간엽 종양(mesenchymal tumor), 셋째는 난소암

이었다.

첫 번째 주제에서, 진단에 대해서는 AGOG(asian gynecologic oncologic group) 준비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대만의 Chyong-Huey Lai 교수가 부인암에서 PET scan의 역할에 대하여 강의하였는데, PET의 민감도, 특이도는 부인암 영역에서 진단적 유효성이 있다고 보고되지만 아직 까지 보고된 연구 결과가 제한적이라 많아 향후 잘 디자인된 prospective study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치료는 미국 Washington university의 Wui-Jin Koh 교수가 부인암 영역에서의 방사선 치료에 대하여 기존의 사용방법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임상시험을 소개 하였다. 삶의 질적 향상에 대해서는 아르헨티나의 Bermudez 박사가 부인암 환자에서 삶의 질적 향상에 대하여 기본적인 평가 방법들을 간단히 요약하였다.

두 번째 주제에서는 "uterine smooth muscle tumor의 수술 전 진단"이라는 제목으로 Shingo Fujii 교수가 leiomyoma와 leiomyosarcoma의 감별진단을 병리 조직학적인 부분과 MRI 상의 소견에 따른 양상으로 잘 정리하였으며 특히 MRI 소견에서 sarcoma를 의심하는 gray zone criteria를 소개하였다. 대만의 Chyong-Huey Lai 교수는 leiomyosarcoma의 치료에 대해서 다시 강의하였는데, gemcitabine+docetaxel을 이용한 adjuvant chemotherapy가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 현재 진행중인 그 외의 임상 시험 들을 소개하였다.

세 번째 주제는 오후 시간 내내 진행되었는데, 먼저 IGCS 회장인 호주의

Michael Friedlander 박사가 "난소암의 유전적 위험성을 가진 여성에 대한 management" 라는 제목으로 BRCA1, 2를 가진 고위험군 여성에서는 screening이 효과적일 수 없으며 risk reducing salpingo-oophorectomy를 시행하는 것이 현재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였다. 스페인의 Jaime Prat 박사는 조직병리의로서 ovary의 serous borderline tumor의 조직학적 특성에 대하여, 미국 NCI의 Edward Trimble 박사는 low malignant potential ovarian tumor의 치료에 대하여 강의하였고, 캐나다 British Columbia University의 Kenneth Swenerton 교수는 내과 종양전문의 관점에서 초기 난소암 치료에 방사선 치료의 가능성을 chemotherapy-resistant ovarian tumor에서 non-cross resistance with cytotoxics 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으며, 미국의 Curtis & Elizabeth Anderson 암센터의 William Hoskins 박사는 "난소암의 수술적 치료"라는 제목으로 수술치료에 대한 기존의 임상시험 결과들을 잘 정리해 주었다.

IGCS 차기 회장인 벨기에의 Ignace Vergote 교수는 2가지 연계를 강의하였는데, 먼저 "난소암에서 1차, 2차 항암요법"이라는 제목으로 현재 난소암에서 사용되는 항암제들을 잘 정리하였고 플라티늄-저항성 난소암 환자에서 진행중인 임상시험들을 소개하였으며, 이후 "advanced ovarian cancer 환자에서 수술 전 신보조 항암요법"라는 제목으로는 신보조항암요법에 대한 후향적 연구의 분석과 함께 interval debulking surgery와 open

•• NCI Issues Clinical Announcement for Preferred Method of Treatment for Advanced Ovarian Cancer ••

미국 NCI에서 진행형 난소암에서 추천되는 치료방법에 대한 announcement가 금년 1월 4일 발표되었습니다. 이 선언은 GOG (#172)에서 시행된 3상 임상시험 결과 (IV Paclitaxel + cisplatin에 비해 IV Paclitaxel & IP Paclitaxel + cisplatin 방법이 QoL은 떨어지나 PFS, OS가 높았음)를 근거로 GOG, SGO, GCF 등의 지원하에 발표된 것입니다. 이에 따른 NCI announcement 내용은 3기 난소암 환자에서 최적인 수술적 치료후에 사용할 항암화학요법으로 IV & IP chemotherapy를 추천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NCI announcement는 1999년 CCRT 관련 announcement 이래 처음입니다.

1월 5일 NEJM에 관련 논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GOG에 이와 관련된 교육자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www.gog.org/IPChemoEd/ipchemoed.html)

이와 관련하여 학회에서는 4월 20~21일 학회 기간 중에 이에 대한 연계를 준비하였으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laparoscopy에 대하여 강의하였다. 첫 날의 마지막 강의는 미국 UCLA의 교수인 Jonathan Berek이 “난소암에서 immunotherapy” 라는 제목으로 cytokine, 단클론 항체, 백신 및 유전자요법 등에 대한 1상 및 2상 임상시험 들을 소개하였다. Novak's Gynecology의 저자로서 임상가로서 알려진 Berek 교수가 높은 번역학적인 식견을 보여주고, 이러한 분야에 많은 논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무척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11월 19일 둘째 날 강의는 2가지 주제로 나누어졌는데, 첫째는 자궁내막암, 둘째는 자궁경부암이었다. 첫 번째 주제에서 Prat 박사는 자궁내막암의 예후 인자에 관한 여러 연구 결과를 잘 정리, 요약해 주었고, Melbourne 대학의 Quinn 교수는 자궁내막암에서 림프절전제술의 역할에 대하여 현재 논쟁 주제를 서로 다른 관점에서 비교하였으며, 토론토 Sun-nybrook 암센터의 Gillian Thomas 박사는 자궁내막암에서 림프절의 예후 인자로서의 중요성과 치료 방향에 대한 임상시험들을 정리하여 강의하였다. Swenerton 교수는 “자궁내막암에서 multi-modality therapy” 라는 제목으로 자궁내막암 환자들에게 수술, 방사선 치료 및 항암화학요법의 치료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을 하였지만, 적절한 환자 대상군의 선택, 수술의 범위, 방사선 치료량 및 항암화학요법 등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사실 때문

에 아직은 임상적 적용이 제한적인 것으로 보였다.

두 번째 주제의 첫 강의는 근래에 화두가 되고 있는 HPV 백신에 대한 것으로 Trimble 박사가 예방백신과 치료백신에 대하여 기초 원리와 임상 적용에 대하여 심도 있게 강의하였다. 이후 Quinn 교수가 microinvasive cervical cancer의 치료의 논쟁점에 대하여, Bermudez 박사가 “neoadjuvant chemotherapy in cervical cancer” 라는 제목으로, Hoskins 박사는 “surgical management of cervical cancer” 라는 제목으로 각각 강의하였으며, Koh 교수는 “자궁경부암에서 chemoradiation의 현재와 새로운 방향” 이라는 제목으로 chemoradiation에 대한 기존의 GOG trial 결과들과 topotecan이나 Bevacizumab 등을 추가한 GOG trial을 소개하였다. 한편 Thomas 박사의 강의 제목은 “cervical cancer outcome에 hemoglobin과 hypoxia가 미치는 영향” 이었는데, hypoxia가 aggressive phenotype 을 유도하고 angiogenesis 등을 통하여 종양 내의 악성화 과정을 더욱 자극하여 방사선이나 항암제에 resistance가 생기게 한다는 개념으로 anemia 치료의 중요성을 강의하였다.

자궁경부암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특히 감명 깊었던 것은 Fujii 교수의 “precise anatomy for radical hysterectomy with a history of Okabayashi method” 와

Berek 교수의 “Pelvic exenteration for recurrent gynecologic cancer” 라는 제목의 강연이었다.

Fujii 교수는 기존의 Okabayashi method를 더욱 발전시켜 vesicouterine ligament의 박리와 절단 시에 blunt dissection으로 많은 출혈이 있던 것을 개선하였는데, 이는 deep uterine vein으로 drain 되는 middle vesical vein과 inferior vesical vein을 정확히 결찰함으로써 가능하게 된 방법으로 DVD로 녹화된 수술영상을 보여주면서 알기 쉽게 강의하여 더욱 인상적 이었다. 한편 Berek 교수도 Pelvic exenteration을 시행하였던 환자 증례를 소개하면서 수술과정부터 결과까지 자세히 설명하였는데, 외과 및 성형외과 등 많은 분야가 포함된 이 모든 수술과정을 모두 직접 집도한다는 사실이 surgeon인 필자로서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으며 한편 그 술기가 부럽기까지 하였고 현재 생존해 있는 환자의 모습을 감동 주기에 충분하였다.

이틀 동안의 짧다면 짧은 강의의 시간이었는데 round table에서 tight (?)하게 진행된 강의와 진지한 토의로 약간의 피곤함까지 느꼈지만, 빈틈없이 준비된 심포지움과 대가들의 훌륭한 강의는 개인적으로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



제1회 자궁경부암 예방정책 포럼 참관기



고려의대 이재관

지난해 12월 5일 자궁경부암 예방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포럼 개최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대한부인종양콜로포스피학회에서 주최하고 안명옥 국회의원이 주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대한산부인과학회가 후원하는 자궁경부암 예방정책 포럼이 국회 본관3층 귀빈식당에서 자궁경부암 실태파악과 예방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행사 하루 전 내린 눈과 덩펍트럭 노조의 파업으로 국회주변 도로가 봉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종양학회 회원, 보건복지부, 시민단체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다수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포럼의 1부에서는 이화여대 김승철 교수의 자궁경부암의 전반적 사향에 대한 고찰이 있었고, 국립암센터의 신해림 박사는 한국에서의 HPV 감염현황, 카톨릭의대 박종섭 교수는 자궁경부암 검진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포럼의 2부에서는 아주의대 유희석 교수, 보건복지부 설정근 암관리실 팀장, 조경애 건강세상 네트워크 대표, 박숙경 질병관리본부 연구사가 토론자로 참가하여 자유토론행식으로 자궁경부암의 국민홍보사업, 건강검진 사업의 문제점, 자궁경부 선별검사의 정도관리, HPV 예방접종 사업 등에 관하여 토론하였다.

자궁경부암의 원인으로 무분별한 성관계가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하게 부각되어 질병을 숨기는 경향이 있어 다른 유방암이나 위암 등의 국민홍보사업과 달리 어려운 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강순범 회장은 부인종양학회 차원에서 자궁경부암 환우 모임이나 자궁경부암을 극복한 사회 저

명인사를 홍보사업에 영입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자궁경부암 건강검진 사업에서 검진율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설명에 남주현 이사장은 개원가에서 검진료의 낮은 수가로 자궁경부 세포진을 기피하고있어 수가를 현실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궁경부암 검진체계 관리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난립하여 운영되는 검사기관에서의 자궁경부 세포진의 높은 위양성율과 HPV DNA 검사의 높은 위양성율 문제점은 철저한 정도관리를 통해 개선하여야 하며 향후 자궁경부 검진법에 HPV DNA검사의 도입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 하였다.

예방정책 포럼이 법과 제도가 논의되는 최고 권위의 국회에서 이루어진 행사라는 상징적 의미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과정에서 중요한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

터, 언론기관, 시민단체 등 관련 분야의 담당자 모두가 참여하여 분야별로 문제점을 토의하고 개선점을 모색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행사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부인종양학회에서 주도적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정책 사업을 이끌어 가고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의료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데 있어 의사단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의사단체는 의료정책 결정과정에서 깊이 관여하고 의료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담당자를 이해 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자궁경부암 예방 정책 포럼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법과 제도 그리고 예산이 결정되는 의료정책의 한 중심에 의료인이 있으며 능동적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정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행사였다. ♣



제1회 자궁경부암 예방 정책 포럼

국내 자궁경부암 실태 파악 및 예방을 위한 정책적 발전 과제

- 시 기 : 12월 5일(월) 오후 4시 ~ 7시
- 장 소 : 국회 본관3층 귀빈식당
- 주 최 :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 주 관 : 국회의원 안명옥
- 후 원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대한산부인과학회

시간	순서	담당
~ 16:00	등록 및 오프닝 멘트	사회자
16:00 ~ 16:03	환영사	안명옥 의원
16:03 ~ 16:05	인사말	강순범 회장
16:05 ~ 16:07	참석자 소개 및 진행방법 설명	사회자
16:10 ~ 17:10	제 1부 주제발표	진행 : 강순범 회장
16:10 ~ 16:25	자궁경부암에 대한 이해 (자궁경부암 원인 및 HPV질환)	김승철 (이화의대 목동병원 산부인과 교수)
16:25 ~ 16:40	HPV감염 현황	신해림 (국가암관리사업지원평가연구단장/ 국립암센터)
16:40 ~ 16:55	자궁 경부암의 예방실태	박종섭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수)
16:55 ~ 17:10	질의 응답	
17:10 ~ 17:30	휴식	
17:30 ~ 19:00	제 2부 토론 및 종합	진행 : 박재영 (청년 의사 편집국장)
17:30 ~ 18:30	토론 내용 : 자궁경부암 관련 지원정책/자궁경부암과 여성의 삶의 질/정책적 방안/백신 도입의 정책적 과제 등	고운영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팀 팀장) 유희석 (아주의대 병원 산부인과 교수) 설정곤 (보건복지부 보건 의료정책본부 암관리팀 팀장)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 기자)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18:30 ~ 19:00	종합	
19:00~	정리 멘트 및 식사	사회자

자궁경부암 정책포럼 참석자 명단

구분	이름	직급	소속/ 부서
국회	안명옥	국회의원	한나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정형근	국회의원	한나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정화원	국회의원	한나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부인종양학회	강순범	회장	서울대학교병원
부인종양학회	박종섭	교수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 산부인과
부인종양학회	김승철	교수	이화의대 목동병원 산부인과
부인종양학회	김승조	명예회장	포천중문의대 분당차병원
부인종양학회	이승호	부회장	영남대학교 의료원
부인종양학회	김재원	사무총장	서울대학교병원 산부인과
부인종양학회	김경태	상임이사	한양의대부속병원
부인종양학회	조영래	상임이사	경북대학교병원
부인종양학회	송용상	연구위원회	서울대학교병원
부인종양학회	김재훈	세부운영위원회	연세의대 영등세브란스병원
부인종양학회	김영태	세부운영위원회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부인종양학회	유희석	회원	아주의대 교수
부인종양학회	이재관	회원	고려의대 구로병원
부인종양학회	김희숙	회원	삼성제일병원(세포병리학)
부인종양학회	박은경	회원	강남성모병원 산부인과
산부인과학회	남주현	이사장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보건복지부	이종구	보건정책관	보건 의료정책본부
보건복지부	설정곤	팀장	보건 의료정책본부 / 암 관리 팀
보건복지부	함명일		보건 의료정책본부 / 암 관리 팀
질병관리본부	박숙경	주무관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 예방접종 관리팀
질병관리본부	이현주	선임연구원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 전염병감시 팀
질병관리본부	최병선	연구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면역병리센터에이즈·종양바이러스팀
질병관리본부	윤혜선	연구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면역병리센터에이즈·종양바이러스팀
국립암센터	신해림	국가암관리사업 지원평가연구단장	국립암센터 암예방 조기검진과
국립암센터	박상윤	센터장/호발암연구부장	국립암센터 자궁암센터장
미디어	박재영	편집국장	청년 의사
미디어	손종관	편집국장	메디컬업저버
NGO	조경애	상임대표	건강세상네트워크
차병원	김승규	부인암센터장/차병원 의료원장	분당 차병원 부인암센터

2006 제72차 GOG (Gynecologic Oncology Group) Semi-Annual Meeting 참석기



서울의대 정 현 훈

2006년 1월 18일 오후 1시, 김재원 선생님과 함께 병원을 나와 서울역에서 인천공항 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기본적인 새로운 곳으로 향한다는 기대와 함께, 시험을 보고 있는 아내와 부모님께 부탁 드린 아이들을 남겨두고 혼자 간다는 미안함이 공항으로 가는 시간 내내 교차하였습니다. 미국행은 이번이 처음으로, 유럽에 비해 까다로운 비자 발급과정으로 인해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국수속을 하고 면세점을 들른 후, 공항 라운지에서 탑승을 기다리는 동안 그렇게도 좋아하는 비행기들을 맘껏 볼 수 있다는 행복감에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깜빡 잊었습니다. 저녁 7시30분 발 탑승구에서 김용만 선생님과 권용일 선생님, 그리고 김재훈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김희숙 선생님은 먼저 탑승을 하셨는지 뵙지 못하고 나중에 미국에 도착하여 뵈었습니다.

약 10시간의 비행 후 1월 18일 오후 1시경 LA 국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간단한 입국 수속 후 미리 미국에 도착하신 강순범 선생님을 공항에서 만났습니다. 여행사에서 대기 중인 12인승 밴에 타고 San Diego로 향했습니다. 날씨는 서울보다는 온화하였지만, 사전에 알아본 바와는 달리, 쌀쌀한 편이었습니다. 3시간의 시차가 나는 동부의 업무시간에 맞추기 위해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서부의 생활패턴으로, 늦지 않은 오후인데도 차량 정체가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태평양을 오른 쪽으로 바라보며 고속도로를 달린지 2시간이 지난 4시30분 경 San Diego에 도착하였습니다.

문제는 숙소이자 학회장소인 Manchester Grand Hyatt Hotel에 도착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예약이 잘못되어 날자는 물론, 방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황당할 가운데 김재훈 선생님께서

서울의 여행사와 연락하고 직원을 일르고 달려서 겨우 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터에, 앞으로 있을지 모를 사태에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하여 저녁을 배불리 먹기로 하고 San Diego 외곽에 있는 한식집 부가(富家)로 향했습니다. 미리 와 있던 원자력의학원 유상영 선생님, 김문홍 선생님, 송용준 선생님, 신혜림 선생님과 합류하여 미국에서의 첫 식사를 등심과 차돌배기로 시작하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호텔로비에서 GOG Japan 팀을 만나, 가깝고도 먼 이웃과의 회포를 풀었습니다. GOG Japan은 이미 GOG protocol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가 배우고 참고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하였습니다.

1월19일 아침 7시부터 호텔 내 여러 곳에서 protocol meeting과 training course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9시부터 "35 Years of Excellence in Clinical Research"라는 주제로 GOG Winter Symposium이 개최되었습니다. 저는 GOG protocol 등록과 환자 enroll, 그리고 약제와 sample의 수급 등에 대한 사무적인 일에 대한 data management training session에 등록하여 강의 위주의 토론에 참석하였습니다. 나중에 다른 protocol committee등을 참관하면서도 느낀 점이지만, 문장 하나, 과정 하나까지 여러 전문가들의 토론과 반박, 그리고 절충을 통해 하나의 protocol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의 revision을 거쳐 하나의 다기관 임상연구가 수행됨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수행되는 임상시험은 의사만이 아닌, 임상연구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data management에 대한 전문가들이 함께 관여하여 철저한 중간평가와 점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때 부러움과 함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mail로만 문의와 답변을 주고받던 GOG administrative office의 담당자인 Sha-wn Griffin과 Katie Fisk를 만나 인사를 나누고 그 동안의 도움에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습니다. GOG에서는 이번에 provisional member인 KGOG에서 11명이 참석하였다는 점에 대단히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Training session은 쉬는 시간 없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다른 곳에서도 committee와 subcommittee가 계속 열려, 말 그대로 탄 생각할 사이 없이 오전, 오후가 금새 지났습니다.

이날 저녁에는 이번 GOG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던 상피성 난소암에서의 Intraperitoneal (IP) chemotherapy에 대한 symposium이 열렸습니다. 참석자 거의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GOG-172 protocol을 주관하였던 Debrah Armstrong과 Maurie Markman, David Alberts, Steve Barakat 등이 panel로 각자 자신들이 맡은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교과서나 논문에서만 보던 사람들을 직접 보고 그들의 연구 발표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예상대로 IP chemotherapy에 대해서는 많은 찬반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조목조목 질문을 하고 panel들이 답변하는 과정은 밤 10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월 20일에도 아침 7시부터 호텔 내 여러 곳에서 protocol meeting과 training course가 이어졌습니다. 각종 protocol에 대해 토론하는 committee meeting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적하고 수용하는 회의진행을 보면서, 우리가 보아오던 GOG protocol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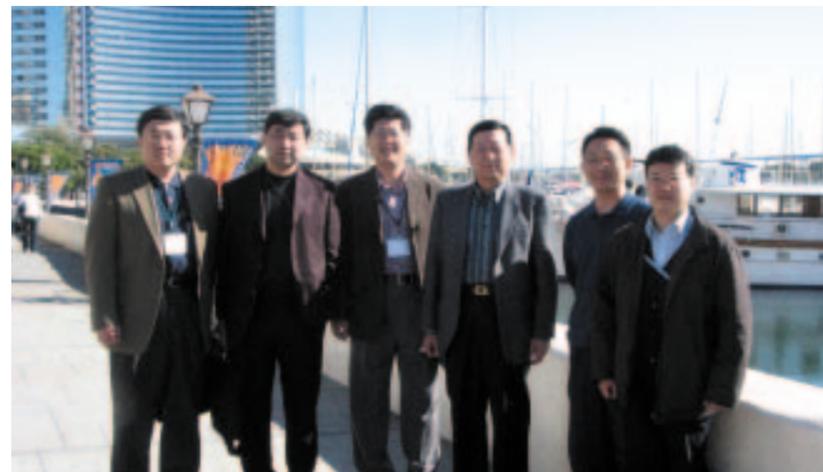
이런 과정을 통해 발의되고 심의되며 시행된다는 점을 보았다는 것이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 없이 많은 토론과 심사, 이의 실행을 위한 다양한 직종과 직군의 사람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을 계획하고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직접 본 것은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오후에는 Oklahoma 대학의 data management를 책임지고 있는 김희선 임상연구 간호사를 만나 GOG protocol 참여에 대한 여러 유용한 정보를 들었습니다. 또한, 4월 경주에서 열릴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초청연자로 예정된 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의 Dennis Chi를 만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국 이민자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젊은 나이에 미국에서 대가로 인정받고 활동하고 있는 Chi는 상당히 겸손하고 부모의 조국인 한국에서의 강의에 대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의 aggressive treatment에 대한 강의가 기대됩니다.

이날 저녁 GOG welcome reception에서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회장인 강순범 선생님께서는 GOG 회장인 Philip DiSaia에게 학회 20년사 기념 문건을 전달하며 GOG에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를 약속하셨고, DiSaia 회장은 KGOG의 관심과 성의에 아낌 없는 지원으로 보답하겠다는 인사를 하

였습니다. Provisional member 자격으로 11명이 참석하였다는 점을 GOG 직원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provisional member 자격을 유지하고 나아가 정식 member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GOG protocol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GOG에서 시행하는 임상시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에만 이러한 관심과 지원이 유지된다는 점으로, 이러한 예는 GOG Japan에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일본도 참여 초기에는 각종 약제의 공급이나 번역의 어려움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회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로 현재는 GOG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와 연관된 많은 부분을 일본에게서 배우고 협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월 21일 역시 오전 7시부터 symposium을 시작으로 sub-committee가 열렸습니다. 자정 LA에서 귀국 비행기편이 예약되어 있어, 오전 11시 check out을 하고 protocol meeting을 들었습니다. Sea food 전문점에서 점심을 함께 한 뒤, 저는 남은 1시간 동안 San Diego 항에 전시된 Midway 항공모함을 관람하고 왔습니다. Gulf 전을 마지막으로 퇴역한 뒤 지금은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TV에서만 보던 항공모함이 실제로 보니 더욱 커서 놀랐고, 이런 것을 60년 전 이미



만들어 사용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데 다시 놀랐습니다. 갑판 위에 있는 제가 더욱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후 3시 숙소였던 Manchester Grand Hyatt Hotel을 떠나 LA로 향했습니다. 뻑뻑했던 일정에 모두 지쳐 LA로 가는 두 시간 동안 잠들었습니다. 5시에 LA에 도착하여 6시 30분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Sushi집에서 맛있는 회와 반주로 짧지만 힘들었고 인상 깊었던 meeting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밤 9시 30분 LA 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출국수속을 하고 자정이 지난 0시 10분 발 대한항공에 탑승하여 1월 22일 아침 6시 5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서 이번 GOG 참석을 끝냈습니다.

간단하게 이번에 참석하고 느꼈던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GOG에 참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주로 행정적이고 윤리와 관련된 문제들이지만, 여기에 더하여 번역과 시간, 거리의 문제와 약제와 시료의 운송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워도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의지와 관심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이 끝나의 일이라는 생각이 절실합니다. GOG 회원들에게서 제가 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한국 내에서만이 아닌, 국제적인 조직의 일원

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위에 맞는 생각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제가 보고 온 GOG meeting과 그 분위기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다녀오신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GOG meeting의 분위기가 어떠한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임상연구에 대한 더 제 시야를 한 계단 더 높일 수 있었던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신 강순범 선생님과 함께 참가하셨던 선생님들께 감사 드리며 두서 없는 글을 마치려 합니다.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20년사

제 4장 각 기관별 부인종양 발전사 중 연세대학교부속 세브란스병원 추가분

본 산부인과학교실은 1886년 엘리 스가 제중원내에 부인과를 최초로 설치하고, 1904년 허스트 교수가 부인부를 맡은 이래, 1934년 영국 Glasgow 와 Edinburgh에서 의학 교육 및 수련을 받은 윤치왕 교수는 제 2대 주임교수로 취임하여 영국식 교육을 도입하였고, 제 3대 주임교수인 설경성 교수는 국내 최초로 자궁경부암근치술을 시도하였으며, 1954년 김재홍 교수는 제 4대 주임교수로 취임하였다. 황태식 교수는 1957년 도미하여 부인과 종양학 및 산부인과 병리학을 연수한 후 제 5대 주임교수로 취임, 현대 자궁암치료 개념을 도입하여 자궁암 근치술, 특히 질식 자궁경부암 근치술 및 골반장기 적출술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성공하였으며 자궁암 환자등록 및 가족계획 클리닉을 설치하여 본 교실의 현대화와 부인암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노경병 조교수는 1958년 도미유학후 황태식 주임교수의 요청으로 Radium 과 Earnst applicator 등을 도입하였다. 그 후 1962년 주임교수 황태식 교수와 이동희 조교수의 노력으로 산부인과학교실내에 자궁암 조기진단센타가 국내 최초로 설립되었으며, 후에 연세암센터 설립에 기초가 되었다. 1966년 제 6대 주임교수로 J. C. Robinson이 취임하였고, 1970년에는 생식생리 연구실이 설립되었으며 곽현모 교수가 제 7대 주임교수로 취임하여 1972년 외래에 수태조절실을 신설하고 미니랩, 월경조절술과 복강경 난관결찰술의 국내보급을 통한 가족계획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1976년 미국연수후 귀국한 박찬규 교수는 부인암 환자의 항암요법을 독립하여 실시하였으며, 특히 자궁경부암 처치에서 치료전 개복술(외과적 병기결정)에 따른 자궁경부암 처치 등을 실시하여 1985년 5년 생존율을 분석하여 치료실패율을 초래하는 예후 인자를 국내 최초로 대한산부인과학회에 숙제보고 하였다. 조사된 예후인자를 토대로 1984년부터 국내 최초로 고위험 자궁경부암에 대한 동시항암방사선요법을 실시하여 생존율 향상은 물론 그 임상 및 조직학적 자료를 이용하여 SCI에 등재된 Cancer지 등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그 업적으로 국제학회 및 암 연구기관등에 초청강연을 실시하여 연세학술상(1987년), 유한학술분상(1994년) 연세대학교 제 1회 우수업적 교수상(1995년)을 수상하였다. 1979년 국내 최초로 연세암센터에 도입된 Remote Control Afterloading System에 박찬규 교수는 도시바와 시마즈 제품등의 장단점을 조사하여 그 기기에 tandem을 부착하겠금 하였다. 자궁경부 조기진단 센타에 Colposcopy 와 Ultrasonography를 설치하였다. 박찬규 교수는 1987년 인유두종 바이러스를 개발한 독일의 Zur Hausen 으로부터 16, 18형의 DNA probe를 직접 받아서 당시 생화학교실과 더불어 southern blotting 테크닉으로 그 빈도를 조사하여 우리나라가 구미제국보다 높지 않은 것을 국내 최초로 보고하였다. 1984년 제 8대 주임교수로 취임한 박찬규 교수는 국내 최초로 한국 실정에 맞는 구미제국 산부인과 제도의 장점을 혼합한

Modified Subspecialty-Director System(부인종양학, 모체태아 의학, 불임 및 생식내분비학)을 도입하여 분야별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부인암 분야에서 부인암 연구강사 제도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본교실에 실시하여 제 1회로 수료한 현 건국대 주임교수인 김수녕 교수는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제 1회 학술상 및 대한암학회 학술상을 수상하였으며, 교실 및 암센터 병리 및 타기관 등에 암환자 통계 처치에 기여하였다. 그후 연차적으로 최동희, 김동규(조교수 퇴임), 양오승, 김영태(현교실 부교수), 이정필(아주대 조교수), 최은경, 김성훈(현교실 전임강사)을 배출하였다. 박찬규교수 퇴임 1년전에 전임강사로 발령 받은 김성훈 전임강사는 박찬규 교수의 5천여명의 부인암 환자를 추적 관찰 및 부인암 환자진료 및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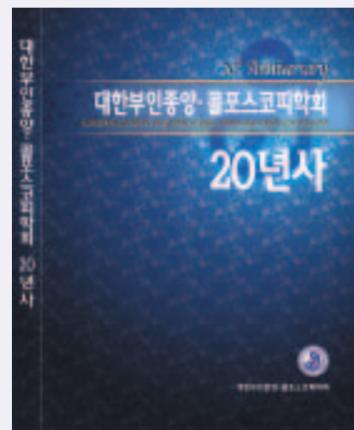
1991년 박찬규 교수는 부인암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진행된 난소암 및 암 중증환자에서 선행 항암화학요법으로 종괴를 감축시켜서 이후 종괴감축술을 실시하고, 수술후 보조항암요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1991년 대한 암학회지에 한국 최초로 보고하였다. 한국신약개발사업에 있어서도 1995년 진행성 자궁경부암 환자에 대한 신경의 SKI 2053R의 제 2상 임상시험에 참가하여 한국 최초의 백금제 항암제 개발에 기여하였다. 이상과 같이 부인암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제 2의 중흥기를 이루었다. 퇴임시 근거중심의 자궁경부암치치(Evidence Based Management

‘대한부인종양 포스코피학회 20년사’ 발간

‘대한부인종양_콜포스코피학회 20년사’가 발간되었습니다.

2005년 11월 25일 제 20차 학술대회 후에 발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20년사 책자는 학회 회원 481분, 대한의학회 소속 학회 138곳, 국내 도서관 166곳, 외국의 부인종양학자 50분에게 배포되었습니다.

여분의 책자가 학회에 보관되어 있으니 책자가 필요하신 분은 학회로 연락바랍니다.



of Cervical Cancer, 박찬규, 김수녕, 김성
훈(제)를 발간하였다.

박찬규 교수는 FIGO 집행이사, 대한부
인종양_콜포스코피학회 회장, 대한의학학

술지 편집인 협의회 초대회장, 대한암학회
부회장, 서울시의사회 학술부회장 등을 역

임하였으며, 현재 연세대 명예교수로서 공
제회 심사위원 및 고등법원 조중위원, 의

료소송연구회위원,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20년사’ 정오표

◎ 135쪽 학술상 1994년도 추가

학술상(1994)

제목: 자궁경부종양에서 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 (PCNS)을 이용한 세포증식능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김수녕 교수

◎ 181쪽 국제 학술지 게재 논문 목록 (SCI) 추가

2000년

문혜성, 김승철, 안정자, 우복희. Concentration of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and transforming growth factor (TGF-β1) in the serum of patients with cervical cancer: Prediction of response. Int J Gynecol Cancer 2000;10:151-6.

2001년

문혜성, 최은아, 박혜영, 최정윤, 정혜원, 김종일, 박원일. The expression and tyrosine phosphorylation of E-cadherin, beta-and gamma-catenin, and the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in cervical cancer cells. Gynecol Oncol 2001;81:355-9.

2003년

문혜성, 박원일, 성순희, 최은아, 정혜원, 우복희. Immunohistochemical and quantitative competitive PCR analyses of midkine and pleiotrophin expression in cervical cancer. Gynecol Oncol 2003;88:289-97.

문혜성, 박원일, 정혜원, 김승철. The expression and tyrosine phosphorylation of E-cadherin/catenin adhesion complex, and focal adhesion kinase in invasive cervical carcinomas. Int J Gynecol Cancer 2003;13:642-6.

학회지 ‘부인종양’ 소식

◎ 학회 공식 학술지인 ‘부인종양’ 이 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지로 평가되었습니다. 향후 2년간 발행되는 학회지를 대상으로 평가 과정을 거쳐 등재지로의 승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학회 공식 학술지인 ‘부인종양’ 을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ICMJE)에서 규정한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 양식’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을 따르는 학술지로 등록하였습니다. 이 양식의 한글판은 www.kamje.or.kr에서 볼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icmje.org/jrnlist.html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Peer-review journal의 저자 자격에 대한 의견 소개

1.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ICMJE)에서는 인정하는 저자의 기준은 보통 발표되는 연구에 지적으로 상당한 기여를 한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 협의회에서는 저자의 요건으로 첫째, 연구의 개념 제안, 기획, 자료의 획득이나 분석 및 해석에 중대한 기여 둘째, 원고의 초안 작성 또는 중요한 지적 부분의 수정에 결정적 기여 셋째, 출판될 최종 원고의 승인,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2. EORTC-GCCG의 출판 관련 규칙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는 EORTC-GCCG 임상시험 그룹의 견해를 소개합니다. 원본은 groups.eortc.be/gcg/의 Statutes of the EORTC-GCG 항목을 보시면 됩니다. (18page 참조)

◎ 국내 각 도서관에 본 학회의 학회지 결본을 파악하였습니다. 학회지를 다시 제작하여 도서관 32 곳으로 총 327권을 발송 완료하였습니다.(19page 참조)

학술지 발전 세미나

· 개최일: 2006년 4월 21일(금) · 장소: 경주힐튼호텔

좌장: 남주현 (학회 편집위원장, 울산의대)

14:00~14:15	학회지 현황 및 학진 등재지 조건	김재원(학회 사무총장, 서울의대)
14:15~14:30	학회지 논문심사 현황 및 전자투고 시스템	김종혁(편집위원회 간사, 울산의대)
14:30~15:00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의 역할	홍성태(의편협 기획위원장, 서울의대)
15:00~15:20	학회지의 medline 및 SCI 진입을 위한 전략	함창곡(의편협 정보관리 위원, 한양의대)
15:00~15:20	Q & A	

1. Primary Clinical Trial Publication

- 1) Group은 출판물에 모든 연구 참여자를 acknowledge 해야 한다. Acknowledgement list는 모든 참여기관과 그 기관에서 임상시험에 참여한 임상사들의 이름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임상시험 참여자가 도중에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옮길 경우, 연구에 참여를 시작할 당시에 소속되어 있던 기관으로 기입하고, “현재는(새로운 기관)에 있다”는문구를 추가해야 한다.
- 2) 가능한 경우, 연구를 지원하는 기업의 대표가 공저자 혹은 acknowledgement에 기재되는지의 여부를 연구계획서의 publication section에 명확히 언급해야 한다. 출판은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 3) EORTC Data Center의 대표 두 명은 공저자가 되어야 한다. 이 두 공저자들은 대부분 통계가와 임상 조정가로 연구의 책임자이자 참가자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통계가 혹은 임상 조정가 중 한 명이 통계학적으로 혹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다른 사람(전임의, 임상 조정가)으로 대체될 수 있다. 연구에 기여한 다른 EORTC Data Center 직원으로 공저자 목록에 나열되지 않은 경우, acknowledgement section에 언급되어야 한다.
- 4) 출판물 제목에 “EORTC”명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만일 논문의 출판 정책상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저자목록 끝에 “EORTC”명칭이 기재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저자목록은 On behalf of the EORTC disease/treatment Group” 혹은 for the EORTC disease/treatment Group”으로 끝날 것을 권유한다.

2. Intergroup Studies

제 1저자는 Coordinating group 소속이어

야 한다. 연구에 환자를 등록시킨 각 기관 당 최소 1명이 공저자(공저자는 각 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해질 수 있다)가 되는 것을 권유한다. 공저자를 추가해야 하거나 공저자의 수가 제한된 경우, 기관당 연구에 참여시킨 환자 수에 비례하여 공저자의 수를 정하도록 한다. 또한, coordinating Data Center 대표 2명은 공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기관과 참여자들은 참여 기관 이름과 참여환자 수를 포함하여 출판물에 acknowledge 되어야 한다. 다른 “Data Center”참여자도, 공저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출판물에 acknowledge 되어야 한다(예를 들어 자료 처리전담, 전 임의, 모니터요원 등).

3. Secondary Clinical Trial Publications and publications of side studies

부 연구 혹은 연구계획을 지휘한 사람은 제 1저자가 된다. 분석과 출판에 기여한 EORTC Data Center staff 또한 공저자가 된다. 다른 공저자는 다른 연구계획에 과학적으로 기여한 사람들 중 선발된다. 다른 저자들은 참가자 중 각 기관의 규정에 따라 선발하도록 한다.

4. Quality of Life (QoL) Studies

QoL이 이차 목표이고 따로 QoL 논문을 쓰지 않은 경우(QoL이 주 논문의 한 부분인 경우), QoL 섭외담당자가 공저자가 되어야 한다. 만일 별도의 QoL 논문을 쓸 경우, 논문 작성의 우선권과 제 1저자 권한은 지식이 있는 QoL 섭외담당자에게 주어진다. 그렇지 않을 경우, QoL Unit의 대표가 논문을 쓰고 제 1저자가 된다. 별도의 QoL 논문들의 저자로는: QoL 섭외담당자(그리고/혹은 다른 그룹의 QoL 대표자), QoL Unit의 대표, Study Coordinator, 분석을 담당하는 Statistician

이 된다. 모든 참여자들은 적절히 acknowledge되어야 한다.

5. Health Economics (HE) studies

일반적으로 주된 임상논문이 쓰여진 이후 경제적 분석이 별도 논문의 주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경제성 평가가 연구계획서의 장으로 구분되어 publications section에 상술되어 있어야 한다).

만일 별도의 HE 논문이 씌어질 경우, 경제 분석을 주도하고 논문을 작성한 사람이 제 1저자가 되고 분석을 담당할 통계가는 공저자가 된다. Data Center team 일원(통계가, 자료 처리담당, 조정을 담당하는 의사)들이 자동적으로 공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논문에의 기여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연구 조정자는 HE 논문 작성에 참여해야 하고, 공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만일 HE이 이차 목표이고 따로 HE 논문을 쓰지 않은 경우로(HE이 주 논문의 한 부분인 경우), 분석이 주 연구 논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경제 자료 분석을 담당할 사람이 논문의 공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EORTC의 연구 자료를 대상으로 후향적 HE 연구계획을 세울 경우,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즉, 연구에 활발히 참여한 사람이 논문을 작성하여 제 1저자가 되어야 한다. 어느 경우이건 모든 참여자들이 적절하게 acknowledge 되어야 한다. 자료의 사용을 허가한 Group 역시 acknowledge 되어야 한다.

6. Meta-Analyses

EORTC가 각 환자 자료의 meta분석을 조정하는 경우, 출판은 연구에서 조정을 맡은 meta 분석 group의 이름으로 하게 된다. 한편, Meta 분석에 기여한 모든 group과 Data Center staff는 acknowledgements에 기재되어야 한다.

각 도서관별 학회지 결본 현황

기관명	결본 권 호 현황
1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도서관	1:1, 3:1, 15:4
2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의학도서관	2:1, 4:1, 15:4, 16:1
3 강동성심병원 도서관	15:4
4 강릉대학교 치의학도서관	1:1, 2:1, 3:1, 4:1, 4:2, 4:3, 4:4, 5:1, 5:2, 5:3, 5:4, 6:1, 6:2, 6:3, 6:4, 7:1, 7:2, 7:3, 7:4, 8:1, 8:2, 8:3, 8:4, 9:1, 9:2, 9:3, 9:4, 10:1, 10:2, 10:3, 10:4, 11:1, 11:2, 11:3, 11:4, 12:1, 12:2, 12:3, 12:4, 13:1, 13:2, 13:3, 13:4, 14:1, 14:2, 14:3, 14:4, 15:1, 15:2, 15:3, 15:4
5 강원대학교 중앙도서관 의학분관	1:1, 2:1, 3:1, 4:1, 4:2, 4:3, 4:4, 5:1, 5:2, 5:3, 5:4, 6:1, 6:2, 6:3, 6:4, 7:1, 7:2, 7:3, 7:4, 8:1, 8:2, 8:3, 8:4, 9:1, 9:2, 9:3, 9:4, 14:4
6 건양대학교 의학도서관	1:1, 2:1, 3:1, 4:3, 4:4, 5:2, 14:3, 15:1, 15:3, 15:4, 16:1, 16:2, 16:3
7 경북대학교 의학분관	16:3
8 경희의료원 의학도서관	1:1, 2:1, 3:1, 15:4
9 계명대학교 의학도서관	5:2, 5:3, 15:4
10 고신대학교 의학도서관	1:1, 2:1, 3:1, 5:1, 5:2, 5:3, 5:4, 12:1, 12:2, 12:3, 12:4, 15:4, 16:1, 16:2, 16:3
11 관동대학교 의학도서관	1:1, 2:1, 3:1, 4:1, 4:2, 4:3, 4:4, 5:1, 5:2, 5:3, 6:1, 6:2, 6:3, 7:1, 7:2, 7:3, 7:4, 8:1, 8:2, 8:3, 8:4, 13:1, 15:4, 16:3
12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도서관	5:1, 5:3, 10:1, 12:4, 13:1
13 대구한의대학교 중앙도서관	1:1, 3:1, 5:2, 5:3, 15:4
14 동아대학교 도서관 의학도서관	1:1, 2:1, 3:1, 5:2, 5:3, 15:4, 16:3
15 동의대학교 중앙도서관의학분관	1:1, 5:2, 5:3, 12:4, 14:4, 15:1, 15:4, 16:3
16 부산대학교 의학도서관	1:1, 3:1, 15:4, 16:1, 16:2, 16:3
17 서울의료원 의학도서관	1:1, 3:1, 5:2, 5:3, 15:4
18 성빈센트 병원도서관	1:1, 2:1, 3:1, 4:1, 4:2, 4:3, 4:4, 5:1, 5:2, 5:3, 5:4, 6:1, 6:2, 6:3, 6:4, 7:1, 7:2, 7:3, 7:4, 8:1, 8:2, 8:3, 8:4, 9:1, 9:2, 9:3, 9:4, 10:1, 10:2, 10:3, 10:4, 16:1, 16:2
19 연세대학교 의학도서관	15:4, 16:1
20 영남대학교의료원 의학도서관	3:1, 15:4
21 울산대학교 의학도서관	15:4
22 원광보건대학 도서관	7:1, 7:2, 12:1, 12:2, 12:3, 12:4, 13:1, 13:2, 13:3, 13:4, 14:1, 14:2, 14:3, 15:1, 15:2, 16:2, 16:3
23 의학연구정보센터	1:1, 2:1, 3:1, 4:1, 4:2, 4:3, 4:4, 5:1, 5:2, 5:3, 5:4, 6:3, 6:4, 11:2, 11:3, 14:4, 15:4, 16:1, 16:3
24 이화여자대학교 의학도서관	15:1
25 인제대학교 의학도서관	1:1, 5:2, 5:3
26 전남대학교 의과대학도서관	3:1, 4:2, 4:3, 5:2, 5:3, 15:3, 15:4, 16:1, 16:2, 16:3
27 전북대학교 의학도서관	3:1, 5:2, 5:3, 15:4
28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1:1, 3:1, 5:2, 5:3, 15:4, 16:1, 16:2, 16:3
29 질병관리본부 기술정보 관리실	1:1, 2:1, 3:1, 4:4, 5:2, 5:3, 10:4, 14:4, 15:4, 16:1
3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1:1, 11:2, 11:3, 11:4, 12:1, 12:2, 12:3, 12:4, 13:1, 13:2, 13:3, 13:4, 14:1, 14:2, 14:3, 14:4, 15:1, 15:2, 15:3, 15:4
31 한국한의학연구원	11:2, 11:4, 12:1, 12:2, 14:4, 15:4, 16:1, 16:2, 16:3
32 한양대학교 의학학술정보관	3:1, 15:4, 16:1, 16:2, 16:3

제2차 대한부인종양연구회 워크숍

·일자: 2006년 4월 20일(목) ·장소: 경주힐튼호텔 ·후원: 보건복지부, 성인고형암치료 임상연구센터

08:50~09:00	개회사	회장: 강순범 (서울대학교병원)
The 2nd KGOG Workshop		
09:00~09:20	IP chemotherapy in Ovary Cancer (NCI Clinical Announcement in 2006)	최장: 김경태 (한양대학교병원)
09:20~09:40	CA 125 Response Definition by GCIG	허수영 (성가병원)
09:40~10:00	Translational Research in GOG	김석모 (전남대학교병원)
10:00~11:00	Report : CURRENT KGOG PROTOCOLS	조치흠 (동산병원)
	KGOG 1002 A Prospective, Multi-Center, Open-Label, Randomized, Controlled Study to Evaluate the Use of IV Iron Sucrose (Venoferrum®) in the Prevention of Anemia in Patients with Cervical Cancer Receiving Concurrent Chemoradiotherapy	김영태 (세브란스병원)
	KGOG 1003 Retrospective Study of HPV Viral Load & Cervical Neoplasia	김영탁 (서울아산병원)
	KGOG 1004 A Randomized Phase III Study of Weekly CDDP vs CDDP + Paclitaxel Combined with Concurrent Radiotherapy in Locally Advanced Cervical Cancer	이종민 (동서신의학병원)
	KGOG 1006 Retrospective Study of Cervical Cancer & Dysplasia in Pregnancy	이종민 (동서신의학병원)
	KGOG 1007 Retrospective Study of Small Cell Carcinoma of Cervix	이종민 (동서신의학병원)
	KGOG 2001 A Phase II Trial of Radiation Therapy with Concurrent Paclitaxel Chemotherapy in High-Risk Endometrial Cancer Patients after Operation	김재훈 (영동세브란스병원)
	KGOG 3001 An Open Label, Single Arm & Multi-Center Phase II Clinical Trial of Gemcitabine Triplet (Paclitaxel+Carboplatin+Gemcitabine) as Consolidation Chemotherapy in Patients with Advanced Epithelial Ovarian Cancer	김승철 (이대목동병원)
	KGOG 3002 Phase II Clinical Trial of Gemcitabine Triplet (Paclitaxel + Carboplatin+ Gemcitabine) as Consolidation Chemotherapy in Patients with Advanced Epithelial Ovarian Cancer Who Achieved Pathologically Complete Response	이기현 (제일병원)
11:00~11:20	Coffee Break	
11:20~12:00	KGOG 3003 Retrospective Study of Clear Cell Carcinoma(CCC) of the Ovary	유상영 (원자력병원)
	KGOG 3004 Comparative Study of Treatment Modalities for Malignant Ovarian Germ Cell Tumor in Korea: Multi-Center Retrospective study	이기현 (제일병원)
	KGOG 3005 Retrospective Study of a Clinicopathologic Analysis of Pseudomyxoma Peritonei	이재관 (고대구로병원)
	KGOG 3006 An Evaluation of Efficacy & Toxicity of Belotecan (Camtobell®) as a Third-Line Treatment for Patients with Recurrent & Refractory Ovarian Cancer	김용만 (서울아산병원)
	KGOG 3007 Effects & Safety of Parenteral Iron [Venoferrum®(Iron Sucrose)] as an Adjunct to Erythropoietic Agent [Recormon®(Epoetin-β)] Therapy in Ovarian Cancer Patients for the Management of Chemotherapy-Related Anemia : Prospective, Multicenter, Open-Label, Randomized Trial	김승철 (이대목동병원)
12:00~12:30	KGOG 1001 시행경험	이택상 (서울대학교병원)
12:30~13:30	오찬	
KGOG Symposium		
Session I. 임상시험 일반		
13:30~14:00	근거중심의 의학과 의료기술 평가	이상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술평가사업단)
14:00~14:30	항암요법에 관련된 보험급여의 현황 및 개선방향	전운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원 기준과)
14:30~15:00	신약개발과 임상시험	최원 (한국GSK 메디컬부)
15:00~15:30	임상시험 계획서 작성법	박민수 (연세의대 임상시험센터)
15:30~16:00	Coffee Break	
Session II. 임상시험과 통계		
16:00~16:40	임상시험에서 통계학적 고려사항	남정모 (연세의대 보건대학원)
16:40~17:20	피험자수 산출	남정모 (연세의대 보건대학원)
17:20~17:30	질문과 토의	

제2차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학술대회

·일자: 2006년 4월 21일(금) ·장소: 경주힐튼호텔 ·후원: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08:00~08:30	등록	
08:30~08:45	학술대상 시상 및 강연	회장: 강순범
Session I Updates in the management of gynecologic cancer		
최장: 이승호, 김경태		
08:45~09:15	The use of minimally invasive surgery in the management of ovarian cancer	Dennis Chi (MSKCC)
09:15~09:20	Discussion	배덕수 (성균관대의대)
09:20~09:35	IP chemotherapy: surgical issues,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complications	최호선 (전남대의대)
09:35~09:40	Discussion	유희석 (아주의대)
09:40~10:10	Role of lymphadenectomy in early endometrial cancer	Ignace Vergote (Univ. Hosp. Leuven)
10:10~10:15	Discussion	송용상 (서울의대)
10:15~10:40	Break	
Session II Controversies in the management of gynecologic cancer		
최장: 이규완, 남주현		
10:40~11:00	Radiation therapy in endometrial cancer	허승재 (성균관대의대)
11:00~11:05	Discussion	남계현 (순천향대의대)
11:05~11:35	Guidelines and selection criteria for secondary cytoreduction in recurrent ovarian cancer	Dennis Chi (MSKCC)
11:35~11:40	Discussion	강석범 (국립암센터)
11:40~12:10	Neoadjuvant chemotherapy for stage Ib2-IIb cervical carcinoma	Ignace Vergote (Univ. Hosp. Leuven)
12:10~12:15	Discussion	김영탁 (울산의대)
Luncheon Seminar		
최장: 박종섭		
12:15~12:40	Prophylactic cervical cancer vaccine development update	Jovelle B. Laoag-Fernandez (GSK Bio)
12:40~13:30	Lunch	
Free communications		
최장: 박충학, 오병찬, 이선경, 이태성, 조삼현, 조영래		
13:30~15:30	일반연제 I/ II	
15:30~15:50	Break	
Session III Experiences in the management of gynecologic cancer		
최장: 한세준, 차순도		
15:50~16:10	Retroperitoneal chemotherapy in gynecologic cancer	Zeyi Cao (Tsinghua Univ.)
16:10~16:15	Discussion	김재훈 (연세의대)
16:15~16:35	The new concept of cervical cancer management	Chunling Chen (Peking Univ.)
16:35~16:40	Discussion	권용일 (한림의대)
16:40~17:00	Chemotherapy for recurrent cervical cancer: New regimen?	김승철 (이화대의대)
17:00~17:05	Discussion	이재관 (고려의대)
17:05~17:30	The utility of in vitro drug response testing to assist in therapy selection for gynecologic malignancies	John P. Fruehauf (UC Irvine)
17:30~17:35	Discussion	안웅식 (가톨릭의대)
폐회		
18:30~20:00	우수논문상 시상 및 만찬	
08:00~17:30	포스터 전시	

20차 학술대회 수상자 명단

학술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제 20차 학술대회 학술대상, 학술상 및 우수논문상 수상자 명단입니다.

학술대상

수상자: 서울대학교 송용상
 논문명: Difference of Radiosensitivity according to the Cyclooxygenase Expressions in Cervical Cancer Cell Lines

학술상

수상자: 이화대학교 김승철
 논문명: 산발성 자궁내막양 자궁내막선암에서 현미부수체 불안정성(Microsatellite Instability)과 hMLH1, hMSH2, Bax의 발현에 관한 연구

우수 논문상 (구연)

수상자: 연세대학교 김상운
 논문명: Analysis of Chromosomal Changes in Serous Ovarian Carcinoma by Microarray Comparative Genomic Hybridization: Potential Predictive Markers for Chemoresistant Disease

우수 논문상 (포스터)

수상자: 성균관대학교 김태중
 논문명: Increased Expression of pAKT is Associated with Radiation Resistance in Cervical Cancer

수상자: 이화여자대학교 주웅
 논문명: Polymorphism of Interleukin (IL)-4 Receptor is Associated with the Risk and the Prognosis of Epithelial Ovarian Cancer in Korean Women

수상자: 가톨릭대학교 이근호
 논문명: Ras Association Domain Family 1A (RASSF1A) Ala133Ser Polymorphism is Associated with Cervical Cancer in Korean Women

학술대상, 학술상, 우수논문상 규정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학술대상, 학술상 및 우수논문상 규정 제정 2005년 4월 11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학술대상, 학술상 및 우수논문상 (이하 학술대상, 학술상 및 우수논문상이라고 칭한다)의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본 상의 시상 대상은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회원으로서, 부인종양학 분야에서의 연구업적과 우수한 논문 등에서 큰 공이 인정된 자로 한다.

제3조 (시상부문 및 자격):

- 1) 시상부문은 학술대상 1명, 학술상 1명, 우수논문상은 구연 발표 1명, 포스터 발표 3명으로 한다.
- 2) 학술대상의 수상자격은 미계재 논문을 본 학회 공식 학술지(이하 '부인종양')에 게재하는 것을 조건으로 공모에 응함으로서 부여된다.
- 3) 학술상의 수상자격은 부인종양에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부여된다. 해당 논문은 '부인종양' 게재 논문을 1편 이상 참고문헌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 4) 학술대상 및 학술상은 교신지자를 수상 대상으로 한다.
- 5) 우수논문상의 수상자격은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학술대회에서 구연 또는 포스터 (제1저자) 발표함으로써 부여된다. 초록 접수할 때 우수논문상 지원 여부를 밝히도록 한다.
- 6) 각 상은 국내에서 시행된 연구에 한하며 종설, 증례는 제외한다.
- 7) 각 상의 수상자는 동일 논문으로 반복 수상할 수 없으며 최근 3년간 같은 종류의 상을 수상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제4조 (시상내역 등):

- 1) 학술대상의 수상자에게는 500만원의 부상을 수여하며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기회를 부여한다.
- 2) 학술상의 수상자에게는 200만원의 부상을 수여한다.
- 3) 우수논문상의 수상자에게는 구연 발표자 100만원, 포스터 발표자 각 50만원의 부상을 수여한다.

제5조 (심사):

- 1) 심사는 학술위원회가 담당한다.
- 2) 학술대상은 접수된 논문 가운데 가장 우수한 논문을 선정한다.
- 3) 학술상은 지난 1년간 '부인종양'에 게재된 논문 가운데 가장 우수한 논문을 선정한다.
- 4) 우수논문상은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학술대회 기간 중에 구연 및 포스터 발표되는 연재 가운데 가장 우수한 연재를 선정한다.

제6조 (시상): 본 상은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학술대회 기간 중에 발표 및 시상한다.

제7조 (학술대상 및 우수논문상 지원자/수상자의 의무):

- 1) 학술대상 지원자 및 수상자는 지원 논문을 1년 이내에 '부인종양'에 접수하여야 한다.
- 2) 우수논문상 수상자는 지원 논문을 1년 이내에 '부인종양'에 접수하여야 한다.
- 3) 발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학회 초록 발표 기회를 3년간 제한한다.

제8조 (부칙):

- 1) 본 규정에 규정하기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 2) 본 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발효한다.
- 3) 3조 3항의 적용은 본 규정이 통과된 이후에 '부인종양'에 접수된 논문에 한한다.

‘부인종양’ 학회지에 논문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저자 명단

제20차 학술대회 학술대상 지원자 및 우수논문상 수상자

번호	교신저자	교신저자 소속	제 목	지원	논문제출 여부
1	이규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Protein expression patterns of cervical cancers characterized by proteomic analysis	학술대상	
2	김재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세브란스병원	Blood Gene Expression Profiling Of Gynecologic Cancers: A Pilot Study	학술대상	
3	이선경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Role of 5' -CpG Island Hypermethylation of FHIT Gene in Korean Cervical Carcinomas	학술대상	
4	김병기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High Expression of Tissue Inhibitors of Metalloproteinase-2 (TIMP-2) in Serous Ovarian Carcinomas and its role in ovarian tumorigenesis	학술대상	
5	박종섭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Anti-tumoral pharmacological targets of paclitaxel (Taxol) in cervix cancer cells	학술대상	
6	송용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Difference of Radiosensitivity according to the Cyclooxygenase Expressions in Cervical Cancer Cell Lines	학술대상	제출
7	김문홍	원자력의학원 산부인과학교실	초기 자궁경부암 근치적자궁적출술후 고위험 환자군에서 3주 간격 시스플라틴(cisplatin)을 사용한 보조적 동시항암화학방사선요법의 유효성 및 안전성에 관한 연구	학술대상	
8	안웅식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Multiplexed liquid assay system profiling for early detection of ovarian cancer	학술대상	
9	이윤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교실	Laparoscopic Transperitoneal Infrarenal Paraaortic Lymphadenectomy in Patients with Gynecologic malignancies	학술대상	
10	안웅식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The combination of oligodeoxynucleotide and therapeutic vaccines induced antitumor immune response	학술대상	
11	안웅식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Identification of differential expression of disease genes by whole genome CGH arrays during different stages of cervical carcinogenesis.	학술대상	
12	주웅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Polymorphism of Interleukin (IL)-4 Receptor is Associated with the Risk and the Prognosis of Epithelial Ovarian Cancer in Korean Women	우수논문상 (포스터)	제출
13	이근호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Ras Association Domain Family 1A (RASSF1A) Ala133Ser Polymorphism is Associated with Cervical Cancer in Korean Women	우수논문상 (포스터)	
14	김태중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Increased expression of pAKT is associated with radiation resistance in cervical cancer	우수논문상 (포스터)	제출
15	김상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Analysis of Chromosomal Changes in Serous Ovarian Carcinoma by Microarray Comparative Genomic Hybridization: Potential Predictive Markers for Chemoresistant Disease	우수논문상 (구연)	

학회회무보고

▶ 2005년 제 10차(총 28차) 세부운영위원회

- 일 시 : 2005년 9월 29일 (목) 오후 6시
- 장 소 : 조선호텔 Board room
- 참석자 : 강순범, 김경태, 김승철, 김재훈, 유상영, 유희석, 이종민, 허수영, 이택상, 김정숙, 김선희, 김종순 (12 인)

1. 제 27차 (2005년 9차) 세부운영위원회 회의록 낭독
⇒ 무수정 통과
2. 보고사항
1) KGOG 사무실 이전 건 ⇒ 10월초 대한산부인과학회측과 의논 후 최종 결정예정
2) 홈페이지 및 전자 증례기록지 구축에 관한 건
⇒ 메드랑, 인포랑과 계약
3) KGOG 연구 간호사 업무 일정표
⇒ 지난달 업무일정표 보고하기로 함
4) GOG, GCIG 관련 건
5) AGOG 관련 건 ⇒ 참석자 추후 결정예정
6) KGOG 감사 건
⇒ KGOG의 법인화를 고려하여 감사받기로 함
7) Retrospective study 참여기관 회신 건
⇒ 참여기관 확정시 CRF 발송예정
8) KGOG 1001 진행현황
9) KGOG 2001 관련 건
⇒ 수정사항 보완하여 IRB 재심사 예정
10) JGOG3017/GCIG Ovarian Trial Protocols
⇒ 보험문제가 해결되면 적극 참여
11) 한.일 부인종양 공동 회의 관련 건
⇒ 일정과 장소 추후 논의하기로 함
12)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 학회 20년사 발간에 관한 건
13) 11월4일 (금) HPV 백신 policy forum
3. 토의사항
1) New Clinical Trials 논의함.

▶ 2005년 제 11차 (총 29차) 세부운영위원회

- 일 시 : 2005년 10월 31일 (월) 오후 6시 30분
- 장 소 : 조선호텔 Board room
- 참석자 : 강순범, 김승철, 김영탁, 김영태, 김용만, 김재원, 김재훈, 유희석, 이종민, 이재관, 김선희, 김종순 (12 인)

1. 제 28차 (2005년 10차) 세부운영위원회 회의록 낭독
⇒ 무수정 통과
2. 보고사항
1) KGOG 사무실 이전 및 오픈하우스 11월10일 예정임
2) KGOG 연구 간호사 업무 일정 보고
3) 홈페이지 및 KGOG 2001 e-CRF 진행현황 보고
4) KGOG 로고 관련 건
5) GOG Nurse Oncologist 관련 건 ⇒ 서울대 간호학과 모성 간호학 박영숙 교수님으로 영입됨
6) 성인 고형암센터 실적 보고서 및 계획서 보고 관련 건
7) Retrospective study 관련 건 ⇒ 난소암 피험자 등록지 Access 작업 착수
8) KGOG 1001 진행현황 및 violation List ⇒ drop out 피험자 선정
9) KGOG 2001 관련 건 논의
10) HPV 소위원회 구성 관련 건 ⇒ 학술위원회 산하로 구성기로 함
11) Guideline 소위원회 구성 관련 건 ⇒ 학술위원회 산하로 구성기로 함
12) GOG Protocol 참여 관련 건 ⇒ NCI CTTEP 번호를 받으면 GOG에 제출 후, KGOG 고유의 I/D와 P/W 부여 받을 예정이고 OHRP 등록된 기관을 중심으로 환자 등록 예정임
13) IGCS meeting (05년 11월 17일~19일) 관련 건
14) GOG meeting (06년 1월) 관련 건 ⇒ 참석자 추후 확정하기로 함
15) 2차 KGOG 심포지움 관련 건 ⇒ 2006년 4월 20, 21일 경 주에서 개최 예정
4월20일 오전-KGOG workshop, 오후-KGOG symposium
4월21일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제21차 학술대회 예정임
16) KGOG 3001 관련 건 논의
17) CAMPTO 관련 건 ⇒ 보험 가능할 경우 적극 참여 예정
3. 토의사항
1) New Clinical Trials 논의함.

▶2005년 제 3차 상임이사회

- 일 시 : 2005년 11월 24일(목) 오후 6시
- 장 소 : 제주 신라호텔 사라룸
- 참석자 : 강순범, 김경태, 김재욱, 남주현, 목정은, 문형, 박상윤, 배덕수, 배동찬, 배석년, 서호석, 이규완, 이준모, 이효표, 최호선, 김재원 (이상 16명)

1. 2005년 제 2차 상임이사회 회의록 보고 - 무수정 통과됨
2. 보고사항
 - 1) 20차 학술대회 개최 관련 보고
 - 학술대상(서울의대 송용상 교수), 학술상(이화대의대 김승철 교수)
 - 학술위원회 산하 '진료권고안 작성 소위원회' 및 'HPV 소위원회' 안 보고
 - 12차 추계심포지움 개최일: 2006.11.17 (금)
 - JSGO 및 중국부인종양학회 접촉 건 보고
 - 2) 28차, 29차 세부운영위원회 개최 보고
 - 5차 한일부인종양합동회의 개최일: 2006.11.18 (토)
 - 3) 온라인 논문접수 및 심사 시스템: 현재 20 건 논문 심사 진행중임.
 - 논문 접수 현황 보고
 - 20년학회사 결산 보고
 - 4) 11월 10일 학회 사무실 개소식 보고
3. 논의사항
 - 1) 21차 학술대회 (2006.4.21, 금) 및 제 2차 KGOG 워크샵/학술지 발전 세미나 (2006.4.20, 목) - 진행기로 함, 중국측 Cao, Chen 초청기로 함.
 - 2) 회계연도 조정의 건 - 조정기로 함.

▶2005년 제 12차 (총 30차) 세부운영위원회

- 일 시 : 2005년 11월 28일 (월) 오후 6시 30분
- 장 소 : 조선포텔 Board room
- 참석자 : 강순범, 김경태, 김승철, 김용만, 김재원, 김재훈, 유상영, 유희석, 이종민, 이재관, 조치흠, 허수영, 이택상, 김선희, 김중순 (15명)

1. 제 29차 (2005년 11차) 세부운영위원회 회의록낭독
 - ⇒ 무수정 통과
2. 보고사항
 - 1) KGOG 오픈 하우스 (11월 10일) 보고: 사무실 운영비는 월 100만원 예상
 - 2) KGOG 감사 결과: 부인종양학회의 정기 총회 때 보고 함
 - 3) GOG 홈페이지 (www.kgog.org) 시연함: 회원 가입시 I.D 와 P/W는 인증 받은 후 관리자 측으로 부여 받음, 산부인과 학회 회원들은 가입 할 수 있고 일반인은 가입 할 수 없게 함, e-CRF data 입력시 다른 I.D와 P/W 이용하기로 함
 - 4) KGOG 연구 간호사 업무 일정표
 - 5) KGOG 1001중간보고서 제출 및 연구비 지급 완료
 - 6) KGOG 1002 참여기관 회신 관련: 연구 시작하기로 함
 - 7) KGOG 1006, 1007 회신 data 관련: 회신 data 미비로 인해 2주 연장
 - 8) KGOG 3003, 3004, 3005 관련 건 ⇒ 피험자 등록 양식지 Access 입력 작업 진행중
 - 9) GCIG 참가 건 ⇒ 자료 보충해서 다음 presentation 하기로 함
 - 10) AGOG 건 ⇒ 11/15~16 대만. 2006년 일본에서 개최 예정임
 - 11) GOG 건 ⇒ NCI institution: 43009 발급 받음, GOG에 환자 enroll시 KGOG에서 단체로 등록하기로 함, OHRP 미등록 기관은 등록토록 격려
3. 토의사항
 - 1) 2006년도 암정복 과제 관련 ⇒ 미리 준비하기로 함
 - 2) Phase 3 trial 관련 ⇒ 다음 회의에서 유상영 선생님이 발표하기로 함
 - 3) New Clinical Trials: 논의함

▶1차 자궁경부암 예방정책 포럼

- 일 시 : 2005년 12월 5일 (월) 오후 6시 30분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참석자 : 강순범, 안명옥 의원 포함 32명

▶HPV 소위원회 1차 회의

- 일 시 : 2005년 12월 5일 (월) 오후 9시
- 장 소 : 렉싱턴 호텔
- 참석자 : 강순범, 김승철, 김영태, 김재원, 김재훈, 김희숙, 박종섭, 송용상, 신해림, 이재관 (10명)

1. 토의내용

- 1) 세포진 검사(Pap smear)의 guideline 정하기: 학회 guideline committee에 의뢰하기로 함
- 2) 세포진 검사 및 HPV test의 quality control 문제: 문제 제기 방법, 세포 병리학회 Q.C의 문제점 등 추후 논의 예정
- 3) HPV test의 보험급여 기준을 검토
 - ① Primary screen의 대상, post conization follow-up, 암 환자의 경우
 - ② 김승철, 김영태, 이재관 교수님 검토하시기로 함
- 4) 암정복과제, 복지부예산, 질병관리위원회 예산 활용하여 multicenter study를 계획한다.
- 5) HPV vaccination 도입 전에 사전 검토 및 사전 연구사항을 정한다.

▶2005년 제 4차 학술위원회

- 일 시 : 2005년 12월 6일(화) 오후 7시
- 장 소 : 학회 사무실
- 참석자 : 강순범, 이규완, 이낙우, 유희석, 김승철, 김병기, 김재원 (7인)

1. 2005년 제 3차 학술위원회 회의록 보고 - 무수정 통과
2. 보고사항
 - 1) 20차 학술대회 개최: 232명 사전등록, 23명 현장등록
 - 2) 학회 공식 학술지에 의무적으로 논문을 게재해야 하는 조록

- 제출자 명단 15명
- 3) 제 1차 자궁경부암 예방정책 포럼 (2005.12.5)
- 4) HPV 소위원회 1차 회의 (2005.12.5)
- 3. 논의사항
 - 1) 21차 학술대회 안 수정/보완 및 준비일정 승인
- ※ Ignace Vergote at Leuven, Belgium: ① Adjuvant therapy in early endometrial cancer: What is the role of lymphadenectomy and radiotherapy? ② Neoadjuvant chemotherapy for stage Ib2~IIb cervical carcinoma
- ※ Dennis Chi at MSKCC: ① Guidelines and selection criteria for secondary cytoreduction in recurrent ovarian cancer, ② The use of minimally invasive surgery in the management of ovarian cancer
- ※ Zeyi Cao, Chunling Chen: 답변 기다리기로 함
- 2) 학술지 발전세미나: 연차 보완
- 3) 12차 추계 심포지움 논의
- 4) 5차 한일부인종양합동회의 논의
- 5) 22차 학술대회 외국연자 초청 건: E. Trimble, Du Bois, T. Thigpen 추진기로 함

▶진료권고안 작성 소위원회 1차 회의

- 일 자 : 2005년 12월 9일 (금) 오후 7시
- 장 소 : 부인종양학회 사무실
- 참석자 : 강순범, 김경태, 박상윤, 배덕수, 송용상, 김병기, 김재원, 이정원 (8인)

1. 취지 및 배경설명 (위원장 김경태)

전체 부인종양학회 및 산부인과학회 회원을 위해 정립된 우리나라의 부인종양 진료권고안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미 미국은 NCCN 권고안을 내놓았고 일본도 최근 자기나라 실정에 맞는 권고안을 3년간의 노력 끝에 만들었다. 이들 토대로 우리나라도 실정에 맞는 진료권고안을 만들어 부인종양 환자의 치료에 표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다.
2. 향후 위원회 운영일정 (부위원장 박상윤)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모든 일정을 한 달 씩 당기기로 협의함.

-위원회 일정표: 1년 소요 예상

1월 4일 (수) 전체 위원회 모임: 취지 설명 및 일정 소개

- 2월말: 자료수집 및 literature review
- 3월말: Flow sheet draft (초안) 작성
- 4월말: Debate point작성
- 6월말: Flow sheet revision & overview 작성
- 7월말: Addendum 작성
- 8월말: Peer review
- 9월말: 최종본 작성 및 final revision
- 10월말: 권고안 발표

3. 토의사항

- 1) Scope
 - 권고안 작성의 범위: 치료를 중점적으로 다루되 진단 및 F/U까지 포함하기로 하였고 향후 revision시 나머지 포함시킬 예정.
 - 질환군: 자궁경부암, 상피성, 비상피성 난소암, 자궁체부암(자궁육종포함)으로 하기로 협의하였고 향후 기타 부인암(GTN, vulvar & vaginal cancer) 확대 적용 예정
 - 2) 권고안의 format
 - 일본 권고안은 3년간의 시간을 들여 완성한 것으로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으나 너무 서술형으로 만들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NCCN guideline의 format을 적용하기로 협의함.
 - NCCN format: 제목, panel member, overview, reference, flow sheet, addendum, etc.
 - 사전에 NCCN에 공식 접촉하여 인용에 대한 permission을 학회 차원에서 미리 받도록 할 것.
 - 3) In-depth level
 - 가능한 한 in-depth하게 작성할 것, 이것은 시간이 변수이므로 시간적 한계가 허용하는 한 자세히 작성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 3팀으로 나누어 지므로 팀 별로 depth가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해결방안)
- (1) 다른 팀의 논의사항 혹은 결정사항을 회의가 끝난 후 이메일을 통하여 수시로 회원에게 통보함.
 - (2) 3개월에 한번씩 개최되는 전체 위원회에서 팀별로 작성중인 권고안을 발표하고 의견교환.
 - (3) 3개월마다 시행하는 전체 위원회 회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1박 2일 일정(금~토)으로 시행하도록 함
 - 4) Major / minor disagreement
 - Disagreement의 기준을 미리 정하고 회의를 하는 것이 시

- 간을 경제적으로 이용하는데 중요함을 강조: 즉 NCCN categories of concensus에서 category가 1, 2A, 2B, 3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사전에, 예로 2B이상만, 논의할 것을 미리 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동의함.
- Vote를 하고 minor opinion으로 명기할 것인가 아니면 controversial issues이므로 open question으로 그대로 둘 것인가에 대한 논의: Vote를 하고 minor opinion으로 명기하는 쪽으로 협의
 - 5) Updating : 1년에 한번으로 하되, 중요한 변경 사항은 수시로 revise하기로 협의.
 - 6) 일정
 - 팀별 모임은 매달 시행 (매달 2번째 월요일 날)하며 장소는 부인종양학회와 산부인과학회 공간이용 다음 1월 4일 모임에 1년 모임일자 확정공고 예정.
 - 1월 4일 전체 위원회 모임이전에 이메일(혹은 웹하드이용)을 통하여 전체 회원에게 사전에 이번 회의록 및 이미 나와 있는 권고안(NCCN, 일본)을 미리 배포하여 사전 숙지하기를 고지할 것.
 - 7) 기타 논의사항
 - 타과전문의 (혈액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의 포함여부 상시 연락은 필요 없다고 판단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각 학회로 공문을 보내고 전문가 2분씩 추천 받기로 협의 (공문 작성은 김재원 교수님이 담당하기로 함)
 - NCCN contact for permission: 이정원 교수 담당.
 - 이번 권고안 작성을 토대로 현재 의료 보험 현실화 그리고 새로운 약제의 적용 및 임상시험 확대를 꾀함.

▶GOG 환자 등록 준비 모임

- 일 시 : 2005년 12월 14일 (수) 오후 5시
- 장 소 : 여도
- 참석자 : 강순범, 김경태, 유희석, 김승철, 김재원, 김재훈 (6인)

논의 내용: KGOG 입장에서 환자 등록이 가능한 GOG protocol review

▶긴급 확대 보험위원회(대한산부인과학회에 발송한 공문 참조: 32쪽)

- 일 시: 2005년 12월 21일(수) 오후 7시 16분~9시 30분
- 장 소: 학회 사무실
- 참석자: 배동한, 박상윤, 김승철, 김병기, 이낙우, 김용만, 김재훈, 박동춘, 김재원 (이상 9명)

1. 2006년판 상대가치 점수 개발 현황 및 문제점 보고
2. 논의사항

다음 사항을 대한산부인과학회 및 심평원에 공문으로 전달하고 향후 수가체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하다.

=다음=

- ① 부인과 주 수술인 전자궁적출술 (R4145)에 비하여 R4166, R4113, R4277, R4341, R4342 등에 대한 상대가치가 잘 못 평가되어 있음. 즉, 진료비용 및 난이도 평가에 있어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② 미국의 RVRBS 체계를 참조해 보면 부인과 주 수술인 전자궁적출술 (R4145)에 비하여 질식분만 및 제왕절개술 등의 상대가치 점수만 상당히 평가되었음.
- ③ 위암, 대장암, 유방암 등에 비하여 부인암 수술의 상대가치가 저평가 된 바 세부내용을 보면 부인암 수술의 의사 업무량이 저평가 되어 있음.
- ④ 부인암 수술의 분류 체계가 최신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여 시대에 뒤쳐진 내용이 변경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요양급여 분류에 있어 부인암 수술에 대한 분류를 새롭게 재편성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제 31차 (2005년 13차) KGOG 세부운영위원회

- 일 시 : 2005년 12월 28일 (수) 오후 6시 30분
- 장 소 : 조선히otel Board room
- 참석자 : 강순범, 김경태, 김승철, 김재원, 김재훈, 유희석, 이기현, 이재관, 허수영, 이택상, 김선희, 김종순, 김인숙 (13인)

1. 제30차 (2005년 12차) 세부운영위원회 회의록낭독 & 무수정통과

2. 보고서항
 - 1) KGOG 홈페이지 및 e-CRF 건 & (주)메드랑 · 인포랑과 계약체결 함, 진행 중
 - 2) KGOG 법인화관련 건 & 김인숙 행정비서가 알아보기로 함
 - 3) KGOG 연구 간호사 업무 일정표
 - 4) KGOG 1001 & 다기관 CRF 수거 후, entry작업하고 safety 결과보고 춘계학회 발표예정
 - 5) KGOG 2001 & 임상시험 계획 변경 신청서 다기관 발송함
 - 6) KGOG 1006, 1007 & 자료 접수 마감 연장, 11차 IGCS 초록 제출 예정 (마감 5월 15일)
 - 7) GOG 관련: 피험자 등록을 시도 할 protocol 소개 & IRB 제출을 위한 protocol 번역을 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5개 기관에서 나눠서 하기로 함
 - 8) 2차 KGOG symposium (06년 4월 20일) 관련 & 별도 모임에서 논의
 - 9) KGOG 회의 (06년 2월) 관련: 일본 측 참가자 초청 & 제 33차 세부운영위원회(06년 2월 25~26일, 제주도)때 KAMURA 교수, 규수대학 team 초청하기로 함
 - 10) Authorship in multi center clinical trials & Authorship에 대한 내용 홈페이지 올리기로 함
 - 11) Message from ICMJE 건
 - 12) www.clinicaltrials.gov & KGOG 1001, 2001 등록하기로 함
3. 토의사항: New Clinical Trials 논의함

▶진료권고안 작성 소위원회 2차 회의

- 일 시: 2006년 1월 4일 (수) 오후 6시 30분
- 장 소: 함춘회관 함춘원
- 참석자: 강순범, 김경태, 박상윤, 김병기, 김영탁, 김승철, 남계현, 김영태, 김찬주, 이종민, 강석범, 조영래, 유희석, 류기성, 김재원, 김재훈, 장기홍, 송용상, 김용만, 유상영, 허수영, 이재관, 송은섭, 김태중 (24명)

1. 부인종양학회장 인사말 (회장 강순범) 진료권고안 작성은 10개월에 걸친 프로젝트이며, 2006년도 부인종양학회 중점사업이므로 위원들의 적극적인 헌신과 도움이 필요함을 강조함.
2. 1,2차 회의 결과를 요약 발표 (간사 김병기)

3. "임상진료지침의 필요성" 슬라이드 발표 (위원장 김경태)

- 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의 진료는 학회 차원에서 표준화할 필요가 있음
- 진료의 질 향상과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표준화가 필요함
- 외부의 규제 이전에 본학회 중심의 자율적인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함

4. "임상진료권고안 개발" 슬라이드 발표 (부위원장 박상윤)

- 임상진료권고안 개발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함
- 일본의 자궁내막암 진료지침 개발 과정을 참고로 보여줌
- 참고문헌의 분류는 EBM(Evidence Based Medicine)의 분류 (level 1-5)를 이용하고 consensus는 NCCN의 category (1-3)를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이지만 NCCN 가이드라인 작성과정 중에 참고문헌을 어떤 방식으로 분류하였는지도 향후 알아볼 것을 제안함.
- 2005년 서울대 guideline workshop 책자와 2004년 일본에서 발간된 ovarian cancer treatment guideline 책자를 소개하고, 모두가 참조하길 당부함.

5. "진료권고안 작성 소위원회 향후 일정" 슬라이드 발표 (간사 김병기)

- 소위원회의 1년 일정을 소개함
- 지침서의 형식을 전체적으로 통일하기로 하고 NCCN 순서를 따르되 overview를 앞쪽으로 해서 panel member 차례 overview flow sheet 순으로 권고안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으며, 권고안의 구체적인 정식 명칭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함.
- 지침서작성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NCCN 권고안에서 category 2A 이상은 permission 을 얻은 후 원용하고 category 2B, 3의 경우는 우리 실정에 맞게 소위원회에서 수정하는 것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음. 단 2A 이상인 경우도 우리 실정에 따라 추가 사항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논의하기로 함.

6. 질의 및 응답

- Q) NCCN 권고안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만드는 권고안이 어떠한 독창성을 가질 수 있을까?
- A) 권고안을 만들다 보면 독창성이 나올 수 있을 것임.
- Q) NCCN 권고안이 정한 high-level, lower-level evidence 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
- A) 아직 모르겠으며, 다같이 공부하여 찾아 볼 사항임.

7. 토의

- 회의 날짜를 사전에 정한 이유는 장소 (산부학회 사무실) 이용 때문임.

- 도출된 consensus 초안에 대해 어느 선까지 동의를 구하는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우선 전체 위원들이 모이는 매 3개월마다 위원들간에 공유를 하기로 하고, 위원이 아닌 학회 회원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문제는 봄학회와 가을학회를 이용하여 전체 회원에게 공지하는 방안과, 완성본이 나오고 난 후 원로 회원들에 의한 peer review를 통하여 들어보자는 의견이 있었음. 추후 결정해야 할 문제임
- 2005년 서울대 workshop 책자와 2004년 일본 책자를 복사하여 전 위원들에게 배부하기로 함. (담당 : 김재원 교수 또는 이정원 교수)
- 국제논문뿐 아니라 국내논문도 search 하여 인용하기로 함
- 일단 한글본으로 만들기로 함. (영어본도 같이 만들자는 의견도 있었음)
- 일본자료 (2005 한일학회, 2005.11 차병원 연수강좌 발표내용) 도 활용하고, 필요하면 permission 을 받기로 함. (김경태 교수, 유희석 교수가 갖고 있는 자료임)
- 2006.2.13 까지 팀별로 자료 수집하여 초안을 작성하기로 함
- 팀장 권한으로 팀별로 2명씩 추가 위원을 모집하기로 함.

▶HPV 소위원회 2차 회의

- 일 시 : 2006년 1월 5일 (목) 오후 6시 30분
- 장 소 : 학회 사무실
- 참석자 : 강순범, 강석범, 김승철, 김영탁, 김영태, 김재원, 김재훈, 김희숙, 박종섭, 송용상, 신해림, 이재관, 정환욱(13명)

1. 제 1차 회의록 낭독 : 무수정 통과

2. 보고사항

- 1) GSK vaccination study(HPV-033)진행 현황
- 2) MSD vaccination study(023)진행 현황
- 3) Pap smear 및 HPV test의 QC 현황
- 4) 보험급여 및 Practice Guideline

3. 토의내용

- 1) HPV vaccination 사업 시작과 동시에 등록 작업 병행하도록 하여 향후의 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함
- 2) HPV test의 quality control 문제 : 해부병리학회 및 진단검사의학과의 정도관리학회 관계자와 의견 교환후 문제점을 해결하기로 함

3) HPV 검사 practice guideline에 대해 조사하여 보고하기로 함

- ① HPV 검사에 대한 대국민 및 의사용 홍보 문건 작성 : 강석범, 정환욱
- ② HPV screening guideline : 자궁경부암 검진 소위원회
- ③ Hybrid capture 2 : 김승철, 이재관
- ④ HPV typing : 김승철, 강석범

▶제 32차(2006년 1차) KGOG 세부운영위원회

- 일 시 : 2006년 2월 6일 (월) 오후 6시 30분
- 장 소 : 조선히텔 Board room
- 참석자 : 강순범, 김경태, 김병기, 김석모, 김승철, 김영탁, 김영태, 김용만, 김재원, 김재훈, 유상영, 유희석, 이기현, 이종민, 이재관, 조치흠, 허수영, 정현훈, 김선희, 김종순, 김인숙 (21명)

1. 제 31차 (2005년13차) 세부운영위원회 회의록낭독 & 무수정 통과

2. 보고사항

- 1) KGOG 홈페이지 (www.kgog.org) & 3일 1일 오픈식 예정, 오픈공문 우편 및 메일발송 예정임
- 2) KGOG 연구 간호사 업무 일정표
- 3) 2005년도 KGOG 세부운영위원회 참석률 현황
- 4) KGOG 2001 진행 현황 보고
- 5) KGOG 3003, 3004, 3005 & 각각의 protocol 담당 PI 교수님들께서 통계처리 하기로 함
- 6) SCI 논문 성과금 & 2005년도까지는 예정대로 하고, 2006년도부터는 임상 논문만 지원
- 7) KGOG 회의 (06년 2월) 관련 건 & 일시: 2006년 2월 25일 (토), 26일(일), 장소: 제주
- 8) 2차 KGOG symposium: 2006년 4월 20일 (목), 장소: 경주 힐튼호텔
- 9) AGOG 관련 건 & 개인적인 base로 추진하되, 중간보고 하기로 함
- 10) GOG 관련 건
 - ① GOG semi-annual meeting 보고 & 정현훈 presentation 함
 - ② KGOG에서 참여 할 protocol 소개 & Cervix: GOG-0219, Ovary: GOG-0218, OVM0503으로 선정되어 진행하기로 함, 5개 선정된 GOG PROTOCOL 중 GOG-0127T

(Phase II)은 추진하되, 나머지 PROTOCOL은 QoL를 만든 후 진행하기로 함

- ③ KGOG 회원의 GOG protocol 참여 공문 관련 건 & KGOG 회원님들께 공문 발송하기로 함
 - ④ KGOG-Japan 참여 protocol 소개
 - 11) 암정복 추진 연구 개발사업 관련 별도 소모임 회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함
 - 12) KGOG 법인화 관련 건 & 김인숙 행정비서가 KGOG 회칙을 제출하여, 고유번호증 부여받기로 함
 - 13) IP chemotherapy 관련 건
3. 토의사항: New Clinical Trials 논의함

▶HPV 소위원회 3차 회의

- 일 시 : 2006년 2월 9일 (목) 오후 6시 30분
- 장 소 : 학회 사무실

▶진료권고안작성 소위원회 3차 회의

- 일 시 : 2006년 2월 13일 (월) 오후 7시
- 장 소 : 학회 사무실
- 참석자 : 강순범, 김경태, 남주현, 박상윤, 유희석, 김영탁, 김병기, 김재원, 이정원 (이상 9명)

1. 4차 회의까지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3월 회의까지 논의점을 정한 어느 정도 정리된 flow sheet를 작성할 계획.
2. NCCN의 permission: 우선 어느 정도 draft를 만든 후 NCCN에 보내서 허가를 받는 형식으로 협의의 뒀을 공지함.
3. 각 팀장님들의 회의결과 요약 발표.
 - 1) Guideline의 특성화 및 작성 범위: 최대한의 내용을 포함한 broad한 범주의 내용으로 작성할 것으로 각 팀내에서 협의함을 발표함.
 - 2) 강순범 교수님: 내용은 maximum으로 포함시키고 문서화할 때는 optional / if clinically indicated라는 단서를 붙여서 작성할 것을 당부.
 - 3) 특정 항암제의 regimen 및 용량의 명기에 대한 문제 (자궁경부암팀 구체화 하기 않기로 함, 난소암 구체적으로 작성 계획): 팀별로 다를 수 있음을 동의하고 추후 총괄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함

- 4) 자궁내막암 (유희석 교수님): 자궁내막암 권고안의 IIB~III는 대부분 치료방사선과(R-O)문제이므로 R-O학회의 자문이 반시 필요함.
대책: R-O학회로 공문을 보내어 차기 회의에 R-O 학회 대표를 초빙하며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
- 5) 팀별 R-O 자문단의 위임예정 (김경태 교수님) :SMC 허승재 교수님께 위임을 부탁함
자궁경부암팀 (2명), 자궁내막암 (2명), 난소암 (1명)
- 6) 일차치료 후 surveillance의 기간에 대한 논의: 팀별로 range를 두는 것으로 협의 (ex. 3~4 개월 / 2년 4~6개월 / 3년)
- 7)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은 따로 기준을 만들지 말고 개복술과 같은 범주로 작성한다. (물론 가이드라인에 문구기술 요구)
- 8) 권고안의 명칭이 현 KGOG 에서 KSGOC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 당분간은 명칭없이 작성하기로 동의함.

▶2006년 제 5차 학술위원회

- 일 시 : 2006년 2월 20일(월) 오후 7시
- 장 소 : 학회 사무실
- 참석자 : 강순범, 김병기, 박충학, 유희석, 이규완, 이낙우, 김재원 (7명)

1. 2005년 제 4차 학술위원회 회의록 보고 - 무수정 통과

2. 보고사항

- 진료권고안 작성 소위원회 1차 회의 - 2005.12.9
- 진료권고안 작성 소위원회 2차 회의 - 2006.1.4
- HPV 소위원회 2차 회의 - 2005.12.5
- HPV 소위원회 3차 회의 - 2006.2.9
- 진료권고안 작성 소위원회 3차 회의 - 2006.2.13
- 제 1차 HPV academy - 2006.4.1 (잠정)

- ▶ 학회 학술지에 의무적으로 논문을 게재해야 하는 초록 제출자 명단-3명 논문 제출함

3. 논의사항

- 1) 21차 학술대회 프로그램, 학술지 발전세미나, 2차 KGOG 워크샵/심포지움
Zeyi Cao - Retroperitoneal chemotherapy in gynecologic cancer
Chunling Chen - The new concept of cervical cancer management
Oncotech사 EDR assay 연자 포함
프로그램 및 연자, 좌장 조정함
- 2) 12차 추계 심포지움 관련 주제 안 (2006.11.17)
Session: Guideline, Vaccine study, Investigational new drug, (Molecular) imaging
- 3) 5차 한일부인종양학회의 프로그램 (2006.11.18)
오전: 심포지움 (각 3연제), 오후: semi-closed 워크샵 (상호 공동 protocol을 주제로)
- 4) 22차 학술대회 외국연자 초청 건 (2007.4.20)
E. Trimble, Andreas du Bois, J Berek에게 초청 편지 보내기로 함

▶제 33차(2006년 2차) KGOG 세부운영위원회

- 일 시 : 2006년 2월 25일 (토) 오후 6시
- 장 소 : 제주크라운프라자호텔
- 참석자 : 강순범, 김경태, 김승철, 김영태, 김재원, 김재훈, 유희석, 조치흠, 차문석, 허수영, 이택상, 정현훈, 김선희, 김종순 (14인)

1. 제 32차 (2006년 1차) 세부운영위원회 회의록 낭독->무수정 통과
2. 보고사항
 - 1) KGOG 법인화 관련 건 → 고유번호증 신청함, 3월초 발행 예정임, 김승철 교수님 책임하에 KGOG 운영내규(가안)을 만들어서 다음회의에서 확인하기로 함
 - 2) KGOG 연구 간호사 업무 일정표
 - 3) KGOG 2001 관련 건
 - 4) 2차 KGOG symposium 프로그램 보고
 - 5) EORTC Rule for Publication → 홈페이지에 올릴 내용 정리해서 다음회의에서 확인하기로 함

6) GOG 관련 건

- ① KGOG에서 참여 할 protocol 진행현황 → GOG0219에 대한 식약청 구비서류 준비 중이며, GOG로부터 아벤티스에 약품 제공되면, 연구 시작하면 됨
- ② GOG protocol에 참여하기 위한 구비서류 회신기관 → 현재 7개 기관에서 15명이 회신 보내주심,
- ③ GOG protocol QoL study 참가 건 → FACT 측과 계속 접촉하고 있는 상태임.

3. 토의사항

- 1) 암정복 과제 제출 관련 건 ⇨ KGOG에서 3과제 제출하기로 함
- 2) KGOG 3007: 조치흠, 차문석, 허수영, 이택상 교수가 protocol 최종확인하기로 함.

대한부인종양 · 콜포스코피학회 제 21 차 학술대회

- 제 2차 KGOG 워크샵/학술지발전세미나 개최 안내 -

대한부인종양 · 콜포스코피학회는
제 21차 학술대회, 제 2차 KGOG 워크샵 및 학술지 발전 세미나를
4월 20일, 21일 양일에 걸쳐 경주힐튼호텔에서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초록접수 및 등록은 학회 홈페이지(www.ksgoc.or.kr, www.gynecancer.or.kr)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록접수 기간: ~ 3월 25일 (토)까지
- 사전등록 기간: ~ 4월 8일 (토)까지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Korean 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y and Colposcopy

www.gyncancer.or.kr gyncancer@gyncancer.or.kr

(우) 135-01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55-5 102호 Tel 02) 512-5915 Fax 02) 512-5421

일 자 : 2005. 12. 26

대부중 : 제2005-108호

수 신 :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귀하

참 조 :

제 목 : 2006년 상대가치연구에 대한 본 학회의 입장

1. 귀 학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대가치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본 학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 다음 =

- 1) 현재 진행되어 검토단계에 2006년 상대가치 평가는 과간 균형을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과내에서도 시술의 경중이나 위험도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상대가치 연구의 초기 취지와는 판이하게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부인종양학회는 이 상대가치를 객관적인 근거를 가진 점수로 받아들일 수 없음 (아래 표에 대표적인 몇 예만 예시함).

EDI	번호	분류	2005년 상대가치점수	2006년 상대가치(예정)	심명원 점수	의사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	신상대 가치/현행상대 가치
				총점					
	3975	전자궁적출술 Hysterectomy							
R4145	3980	(1) 단순 Simple	5,198.19	2959.51	305.59	2601.41	52.51		0.57
R4166	3989	골반경에 의한 이물제거술 Pelvic Foreign Body Removal	1,284.48	22277.73	146.46	22106.64	24.63		17.34
R4277	4024	자궁내장서체제거 기 타의 경우 Others	282.03	3641.21	39.35	3595.07	6.79		12.91

- 2) 현재 진행된 상대가치 연구는 1997년 이후의 의학기술의 발전이나 의료 경영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부인암 수술에 대한 분류는 현재 행해지는 부인암 수술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전근대적 분류체계에 그 근거를 두고 있어 타과의 암수술에 비하여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 또한 상대가치 평가의 초기 취지를 흐리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부인암수술의 경우 의사 업무량의 재평가는 물론 근본적인 분류체계의 재편성이 불가피함.

보험위원회 위원장 배동한
대한부인종양·콜포스코피학회 회장 강순범

2006년 주요 학회 일정

일자	학회명	장소	홈페이지
1. 20 - 22	GOG Semi - Annual Meeting	샌디에고	www.gog.org
3. 8 - 12	NCCN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	플로리다 허리웃	www.nccn.org
3.13 - 17	ASCCP Biennial Meeting	라스베가스	www.asccp.org
3.22 - 26	37th SGO Annual Meeting	팜스프링스	www.sgo.org
3.30 - 4.1	BSCCP 2006	런던	www.bsccp.org.uk
4.1 - 5	97th AACR Annual Meeting	워싱턴	www.aacr.org
4.20	제 2차 KGOG workshop/symposium	경주	kgog.org
4.21	21차 대한부인종양학회 학술대회	경주	ksgoc.or.kr
4.22 - 25	일본산부인과학회	요코하마	
4.23 - 26	EUROGIN 2006	파리	www.eurogin.com/2006
6.3 - 6	42nd ASCO Annual Meeting	아틀란타	www.asco.org
7.1 - 3	ESO Advanced courses and seminars	프라하	www.cancerworld.org
7.1 - 4	19th EACR	부타페스트	www.fecs.be
7.8 - 12	UICC World Cancer Congress 2006	워싱턴	www.uicc.org
7.20 - 22	40th 日本婦人科腫瘍學會	Gifu	www.jsgo.gr.jp
7.21 - 23	GOG Semi - Annual Meeting	워싱턴	www.gog.org
8.31 - 9.6	23rd Int'l HPV Conference & Clinical Workshop	프라하	www.ipvconference2006.org
9.8 - 10	AOGIN 2006	세부	www.aogin.com
9.29 - 10.3	31st ESMO Congress	이스탄불	www.esmo.org
10.14 - 18	11st IGCS	산타모니카	www.kenes.com/igcs - 11/
11.5 - 10	2006 FIGO World Congress of Obstetrics & Gynecology	쿠알라 룸프르	www.figo2006kl.com
11.7 - 10	18th EORTC - NCI - AACR Symposium on Molecular Targets and Cancer Therapeutics	프라하	www.fecs.be
11.17	12차 대한부인종양학회 심포지움	서울	ksgoc.or.kr
11.18	5차 한일부인종양학회의	서울	ksgoc.or.kr
미정	5th Int'l Cervical Cancer Conference	베니스	

학회 사무실 개소식



▲ 학회 사무실 개소식 기념촬영

지난 2005년 11월 10일(목) 대한부인종양학회 사무실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위치는 논현동 소재 대한산부인과학회 건물 102호로 35여분이 참석하였고 가천의대 부인종양학과, 제일병원장, 조선대학교병원 한세준 교수님, 대한산부인과 학회, 전북의대 산부인과학교실, 아주의대 유희석 교수님 및 여러 제약회사 관계자께서 화분/화환을 보내 축하해 주셨습니다.

학회는 2006년 1월 17일자로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211-82-60962)를 발부받았습니다. 이 고유번호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에 발행하는 세무당국의 관리번호로 학회명으로 된 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55-5번지 102호 (135-010)
 전화: 02-512-5915
 팩스: 02-512-5421
 E-mail: gynecancer@gynecancer.or.kr
 Homepage: www.ksgoc.or.kr,
 www.gynecancer.or.kr

◀ 학회 직원들

회원 동정

- 1 전섭, 김상운, 김현준, 정은정, 길명도 님이 신입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 2 최호선 회원이 2005년 14차 ESGO (이스탄불, 터키)에서 포스터 발표한 'Human papillomavirus genotyping by HPV DNA chip in Korean women' 연제가 Best poster presentation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 3 2005년 연회비 납부자: 강순범, 강재성, 고민환, 고석봉, 고재환, 권상훈, 길명도, 김경진, 김경태, 김기태, 김문홍, 김병기, 김상운, 김석모, 김성한, 김성훈, 김수녕, 김승조, 김승철, 김영탁, 김영태, 김용만, 김용범, 김용욱, 김원규, 김재욱, 김재원, 김재훈, 김종혁, 김진우, 김찬주, 김 철, 김학순, 김현준, 김현호, 김홍배, 김홍곤, 김희숙, 남계현, 남궁성은, 남상륜, 남주현, 노홍태, 류기성, 목정은, 문영진, 문 형, 박노현, 박상운, 박성호, 박영한, 박일수, 박종섭, 박찬규, 박찬용, 박충학, 박태철, 배덕수, 배동한, 배석년, 배유영, 서호석, 손우석, 송용상, 송은섭, 신영우, 신진우, 심재철, 안웅식, 안치석, 안태규, 여태홍, 오병찬, 유상영, 유수정, 유정완, 유희석, 윤만수, 윤주희, 이규완, 이기현, 이낙우, 이동현, 이두진, 이선경, 이선주, 이승호, 이영호, 이용우, 이윤순, 이응수, 이익돈, 이재관, 이정필, 이종민, 이종학, 이준모, 이 찬, 이천준, 이철민, 이태성, 이효표, 장기홍, 장두영, 전 섭, 전해원, 정상근, 정은정, 조삼현, 조영래, 조지흠, 차동수, 차문석, 차순도, 최상준, 최석철, 최호선, 한세준, 허수영, 허주엽, 홍상기, 황윤영 (121명)

{ 학회 사무실 이전 안내 }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55-5번지 102호 (135-010)
 전화: 02-512-5915 팩스: 02-512-5421
 E-mail: gynecancer@gynecancer.or.kr
 Homepage: www.ksgoc.or.kr, www.gynecancer.or.kr

編輯後記

지난 몇 년간 毎年 반복되는 現狀이지만 2005년 乙酉年은 우리 회원들께는 특히 暗鬱한 한해였습니다. 低出産 現狀으로부터 시작된 産婦人科의 醫療環境 惡化가 드디어는 未曾有의 新入 專攻醫 大量 未達事態를 觸發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環境 속에서도 大韓婦人腫瘍_콜포스코피學會 회원들은 診療 및 學術活動에서 先導的 役割을 하였고, 학회는 많은 業績을 이루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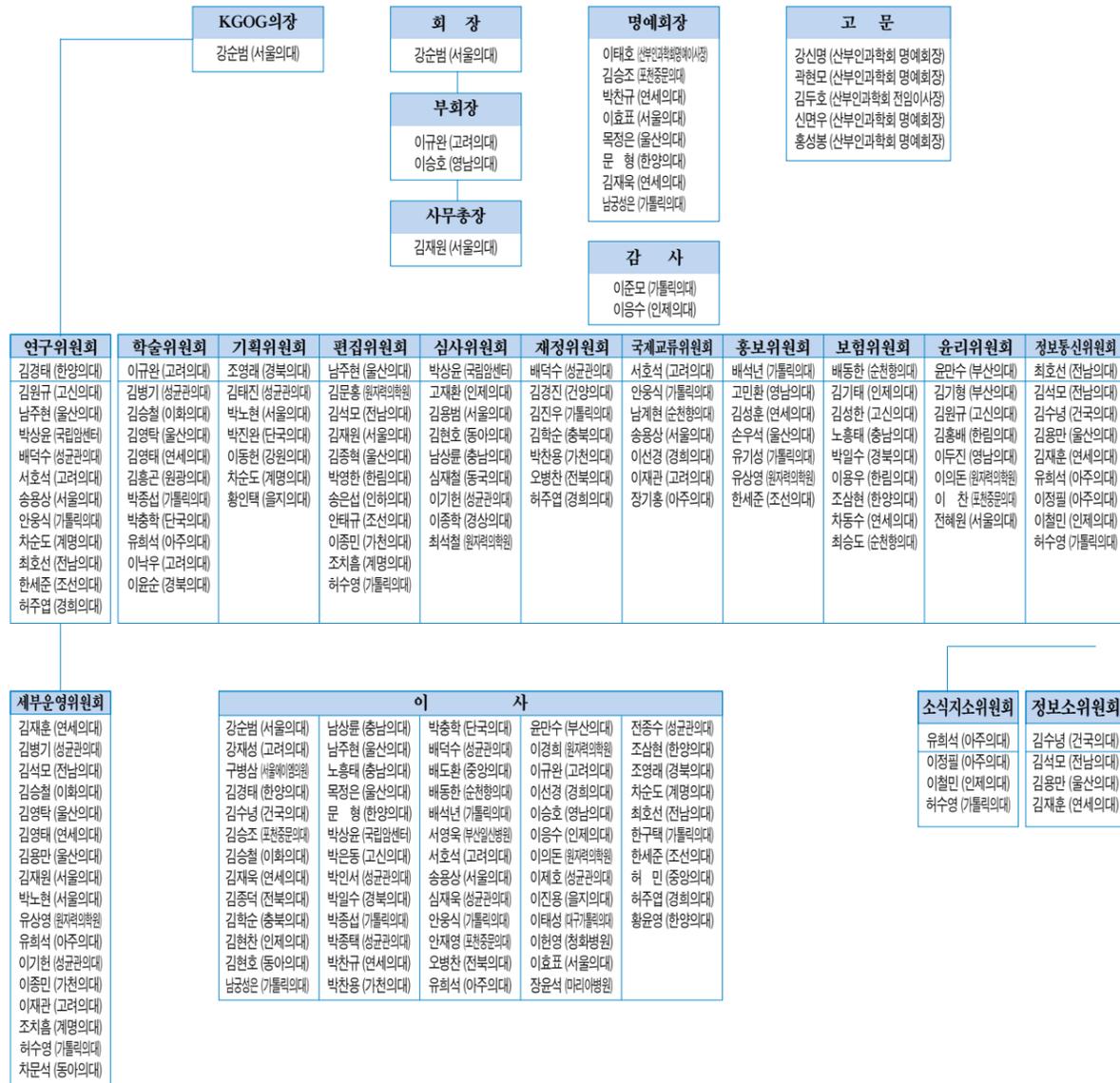
특히 지난 20년간의 歷史를 되돌아보고 정리한 '大韓婦人腫瘍_콜포스코피學會 20年史'를 發刊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後學들의 汲及이 되어 無限한 學會發展의 礎石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學會誌는 公式名稱을 '부인종양'으로 改稱하였고, 뿐만아니라 '學術振興財團 登載 候補誌'로 平價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宿願이었던 大韓婦人腫瘍學會 事務所이 논현동 소재 大韓産婦人科學會 건물 102호에 마련되어 지난 11월 10일 現지에서 開所式이 있었습니다.

한편 學術活動으로는 11월 25일 濟州에서 "제 20차 大韓婦人腫瘍_콜포스코피學會 秋啓學術大會"을 성공적으로 開催하였습니다. 海外學會로는 9월 말 터어키 Istanbul에서 개최된 35차 유럽 婦人癌學會 (ESGO)에 약 30 여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演題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외에 GCIG 및 ECCO, IGCS pathology review course, HPV policy forum, GOG congress 등 多樣한 國際學會에 젊은 회원들을 中心으로 參與하여 向後 우리 學會의 世界化 展望을 더욱 밝게 하였습니다.

大韓婦人癌研究會 (KGOG)는 子宮頸部癌 多機關 臨床研究 protocol인 KGOG-1001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001 및 3001 등 새로운 protocol을 마무리하여 새로운 臨床研究를 시작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 危機는 또 다른 幾回라고 합니다. 모쪼록 올해는 회원들의 衆志를 모아 슬기롭게 難局을 克復할 것을 祈願합니다.

소식지 소위원장- 유희석



HPV 소위원회 (HPV Committee)

위원장: 박중섭 (가톨릭의대)
간 사: 김재훈 (연세의대)
위 원: 강석범 (국립암센터), 김승철 (이화의대), 김영탁 (울산의대), 김영태 (연세의대), 김희숙 (성균관의대), 송용상 (서울의대), 신해림 (국립암센터), 이재관 (고려의대), 정환욱 (미래와 희망)

진료권고안 작성 소위원회 (Guideline Committee)

위 원 장: 김경태 (한양의대)
부위원장: 박상운 (국립암센터)
전체간사: 김병기 (성균관의대)

자궁경부암 진료권고안 개발팀
자문위원: 최호선, 배덕수
위 원: 김영탁(팀장), 김찬주(간사), 김승철, 남계현, 김영태, 이종민, 강석범, 김석모

자궁내막암 진료권고안 개발팀
자문위원: 서호석, 조영래
위 원: 유희석(팀장), 장기홍(간사), 류기성, 김재원, 김재훈, 차문석, 이기현, 김중혁

난소암 진료권고안 개발팀
자문위원: 남주현, 송용상
위 원: 김병기(팀장), 이정원(간사), 김용만, 유상영, 조치흠, 허수영, 이재관, 송은섭,